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탈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12호 2026년 03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55, 310호 (정훈빌딩)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국가별 교민회,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익적 주민조직으로 성장해요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박결)는 지난 2월 22일 시흥에코센터 중등교육실에서 재시흥 국가별 교민회 8개국 대표 20여 명을 대상으로 지도력(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교민회 운영을 앞두고 대표단의 책임성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친목 중심의 모임을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익적 주민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운영 역량 강화 방안과 회원 관리 체계, 각종 사업 참여 시 요구되는 책임 있는 자세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관련 기사 5면〉 송하성 기자

Immigrant Legal Support Team for Vulnerable Immigrants

Gyeonggi Province is recruiting lawyers for its "Gyeonggi Province Immigrant Legal Support Team Support Project" until March 13th.

The Immigrant Legal Support Team was established to provide professional litigation support to vulnerable immigrants in the province who face difficulties accessing legal services due to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and lack of information.

Gyeonggi Province plans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reliable legal support system by forming a team of approximately 20 lawyers, focusing on civil (including labor), domestic affairs, and administrative (including immigration) matters. Applicants must be licensed attorneys and have at least two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 Experience with immigration/foreigner-related cases or relevant training will be given additional points.

Selected attorneys will complete mandatory training and begin supporting cases in early April. The appointment period will run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until December 31, 2026.

To prevent excessive legal fees, Gyeonggi Province plans to provide recommended fee guidelines for each case type and increase contract transparency through the use of standard contracts. Actual legal fees will be determin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immigrant and the attorney. Since Gyeonggi Province supports the entire legal assistance process, you can trust us more than other attorneys when litigation is required.

Immigrants in need of legal assistance can contact the Gyeonggi Immigration Social Integration Support Center for consultation.

The center will conduct an initial consultation and review of the case, then select cases requiring legal assistance and connect them with interpretation and litigation support.

Attorneys wishing to participate can download the application form from the Gyeonggi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Support Center website (gmis.or.kr) and submit it via email by March 13th.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Gyeonggi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Support Center at 031-853-9347.

Yoon Hyeon-ok, head of the Gyeonggi Province Immigration and Social Policy Division, said, “We will support immigrants so that they can receive their legitimate rights within the system even in legal disputes,” and added, “We look forward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awyers with expertise and public interest.” 〈한글 기사 25면〉

PapayaStory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안산 3 수원 4 시흥 5 구리 6~7 평택 8~12 하남 13 과천 14 용인 15 광주 16~18 양평 19 광명 20~23 김포 24~28

중국어 中文 11, 17, 25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7, 17 러시아어 Русский 9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9 영어(English) 1, 22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中文, 베트남어 Tiếng Việt, 러시아어 Русский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영어 English,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 합니다〉

정책 Policy 2, 15 생활정보 Information 2, 3, 14, 16 나의 학습 My Study 7, 8, 16, 19 보건 Health 2, 17, 18, 19 이주배경청소년 4, 5 외국인근로자 5, 26 도서관 Library 13, 23 육아 Child Care 6, 10 주거 Residence 6 취업지원 4 동포 3 비자 Visa 7, 9, 11, 22 여가 Leisure 3 법률 Law 1, 25 복지 Welfare 2, 5 교육 Education 20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에어컨 설치 사업 추진

폭염 대응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에 에어컨 설치 지원해요



경기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26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며, 9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고효율 냉방기기(에어컨)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840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저소득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에어컨 설치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5,959가구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비용 절감, 복지 서비스 질 향상, 기후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3월부터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 폭염이 시작되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가 가능한 26개 시군 거주자 중 신청을 희망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6개 시군은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이천, 안성, 구리,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 위기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 신설. 1만대 지원...무상 점검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도민 소유 자동차 약 1만 대를 대상으로 차량 엔진오일과 배터리 등을 무료로 점검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은 시군별로 1~2회 열리는 차량 점검행사장을 방문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차량 점검을 해주는 사업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엔진오일·냉각수·브레이크 오일 등 각종 오일류 점검 및 보충', '에어컨 필터·와이퍼·전구류 등 소모품 교체', '조향·제동·주행 장치 및 배터리·타이어 이상 유무 확인' 등이 포함된다.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의 정비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총 사업비는 4억 원(도비 2억 원, 시군비 2억 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도민 소유 자동차 약 1만 대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22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 시군은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부천, 안산, 평택, 안양,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남양주, 파주, 포천, 연천이다.

시군이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점검 일정과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희망 시군을 수시로 접수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찬웅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은 도민 운행 차량의 이상 고장·결함 등을 미리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차원의 정책"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차량 무상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김동규 의원, 간병 공공모델 발전 제안...병원 현장에서 간병비·서비스 함께 풀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간병SOS 프로젝트' 성과를 짚으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는 것도 있구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작성된 주간정책 및 현안 이슈('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사업 현황과 시사점') 내용을 근거로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층은 평균 연령 80.1세, 70세 이상 88.1%,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74.1%로, 간병비 부담으로 생계 붕괴 위험이 큰 고령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업 수용 의료기관은 급성기·종합병원급 52.8%, 요양병원 40%로,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약 14% 수준에 그치는 현실에서, 간병SOS 프로젝트가 제도적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간병 문제는 간병비 부담과 간병서비스 질이라는 두 축이 함께 해결돼야 한다"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과제도 간병비 지원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업이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은 병원인 만큼, 보건건강국도 현장 중심으로 더 촘촘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는 인력(요양보호 인력) 양성과 근로·복지 여건, 서비스 질 전반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큰 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좋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가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전까지는 지자체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특히 경기의료원을 중심으로 사업 수용과 성과를 점검해, 병원 경영과 도민 체감 혜택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하성 기자



고려인 동포 위한 통역 지원과 문화 교류

안산시, 고려인청소년·청년봉사단 제9기 발대식 개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고려인청소년청년봉사단 제9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신은철 (사)너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봉사단 주요사업 및 활동 소개 ▲제9기 단원 임명장 수여 ▲2025년 우수단원 시상 ▲팀별 활동 오리엔테이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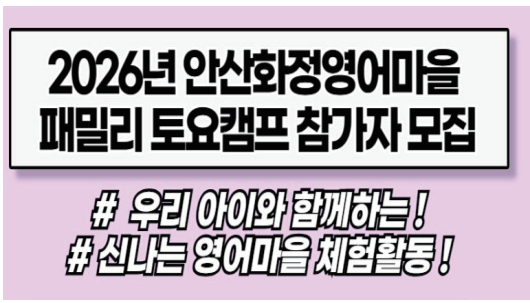
2017년 11월에 창설된 고려인청소년청년봉사단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와 협력하는 마을 자치봉사단이다. 봉사단은 ▲청소년안전팀 ▲한-러 통역팀 ▲역사해설팀 ▲학습멘토링팀 ▲미디어팀 등 5개 팀, 127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고려인 동포를 위해 통역 지원과 문화 역사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마을 순찰 등 지역사회 안전 활동에도 참여하며 주민과 동포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누르가세브 아딜벡 봉사단 단장은 "앞으로 고려인 청소년 청년 동포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바쁜 학업과 일상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선뜻 나서준 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과 세대를 잇는 가교로서 안산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화정영어마을, 체험형 영어 '패밀리 토요캠프' 모집해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설립하고 안산대학교가 운영하는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는 체험형 영어 프로그램 '패밀리 토요캠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패밀리 토요캠프는 7~10세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단위 체험형 영어 프로그램이다.

동물체험 체육활동 요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 중심 수업으로 구성되며, 참여 가족은 영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일상생활 속 회화 표현을 익히게 된다.

프로그램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비는 가족당 4만 원이다. 1차와 2차는 4월과 5월, 3차와 4차는 9월과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1차와 2차 참가 신청은 3월 12일(목) 오후 4시부터, 3차와 4차는 8월 6일(목) 오후 4시부터 안산시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민진영 안산화정영어마을 원장(안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은 "패밀리 토요캠프는 가족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에 의미를 두고 기획했다"며 "아이들이 말하기 중심 체험을 통해 영어 자신감을 키우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학습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31-484-7293

이지은 기자

안산시, 'in산in해 안산여행 캐릭터 잡기 챌린지' 참여...캐릭터 잡고 기념품도 받자



3월부터 안산시 대표 관광 명소에서 캐릭터 잡고 기념품도 받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in산in해 안산여행 캐릭터잡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in산in해 안산여행 캐릭터잡기 챌린지'는 모바일앱을 통해 관내에 출현하는 안산시 캐릭터를 잡는 게임형 프로그램으로 총 2회차로 진행된다. 1회차는 3월부터 4월까지 안산12경을 주제로 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2회차는 5월부터 6월까지 '걸으며 만나는 안산'을 테마로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하며 캐릭터 잡기 챌린지가 진행된다.

1회차 챌린지는 안산12경을 주제로 여행의 재미를 주면서 기념품도 제공한다. 앱스토어 또는 플래이스토어에서 모바일앱 '워크온'을 내려받은 후 앱 내 'in산in해 안산여행 캐릭터잡기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지도에 출현하는 캐릭터를 따라 관광지를 방문, 캐릭터를 클릭하면 마일리지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앱 내 게시판을 통해 관내 업체(식당, 카페) 인증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기프티콘도 받을 수 있다.

캐릭터가 출현하는 관광지는 대부도와 안산 시내의 문화·생태 명소를 포함한 총 11곳으로 구성된다. 안산12경을 주제로 대부도 6개소(시화호조력발전소, 대부해솔길, 구봉도 낙조, 탄도 바닷길, 풍도, 바다향기수목원)와 안산시내 5개소(안산갈대습지, 다문화거리, 김홍도길, 수암봉과 안산읍성, 호수공원과 무궁화동산)이다.

챌린지에 참여한 관광객은 모은 마일리지에 따라 기념품을 신청할 수 있다. 기념품은 매월 추첨을 통해 다음 달에 지급되며, 마일리지에 따른 지급 내용은 ▲5,000마일리지 적립 시 모바일 기프티콘 5천원 권 ▲10,000마일리지 적립 시 안산다온상품권 충전 1만 5천원 권 ▲게시판을 통한 후기 인증(관내 식당·카페 이용) 시 모바일 기프티콘 5천원 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문화관광 누리집 '테마여행-캐릭터잡기 챌린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새로워진 안산여행 캐릭터잡기 챌린지를 통해 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숨겨진 안산의 매력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설맞이 문화행사체험 "글로벌 다락방" 개최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윤영민 요셉 센터장)는 지난 2월 11일 총 78명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맞이 문화행사체험 '윷놀이대항전: 내가 말이다!'를 진행했다.

세계시민의식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계 여러 나라의 설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을 통해 문화다양성, 다문화감수성 등 세계시민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센터 측은 설날 유래, 전통 놀이, 각 나라의 유사 행사 등을 사전에 교육하고 당일에는 새해인사, 반 별 대항전 인간 윷놀이와 점심식사(떡만두국), 복주머니(포춘쿠키 등) 전달 등 설 명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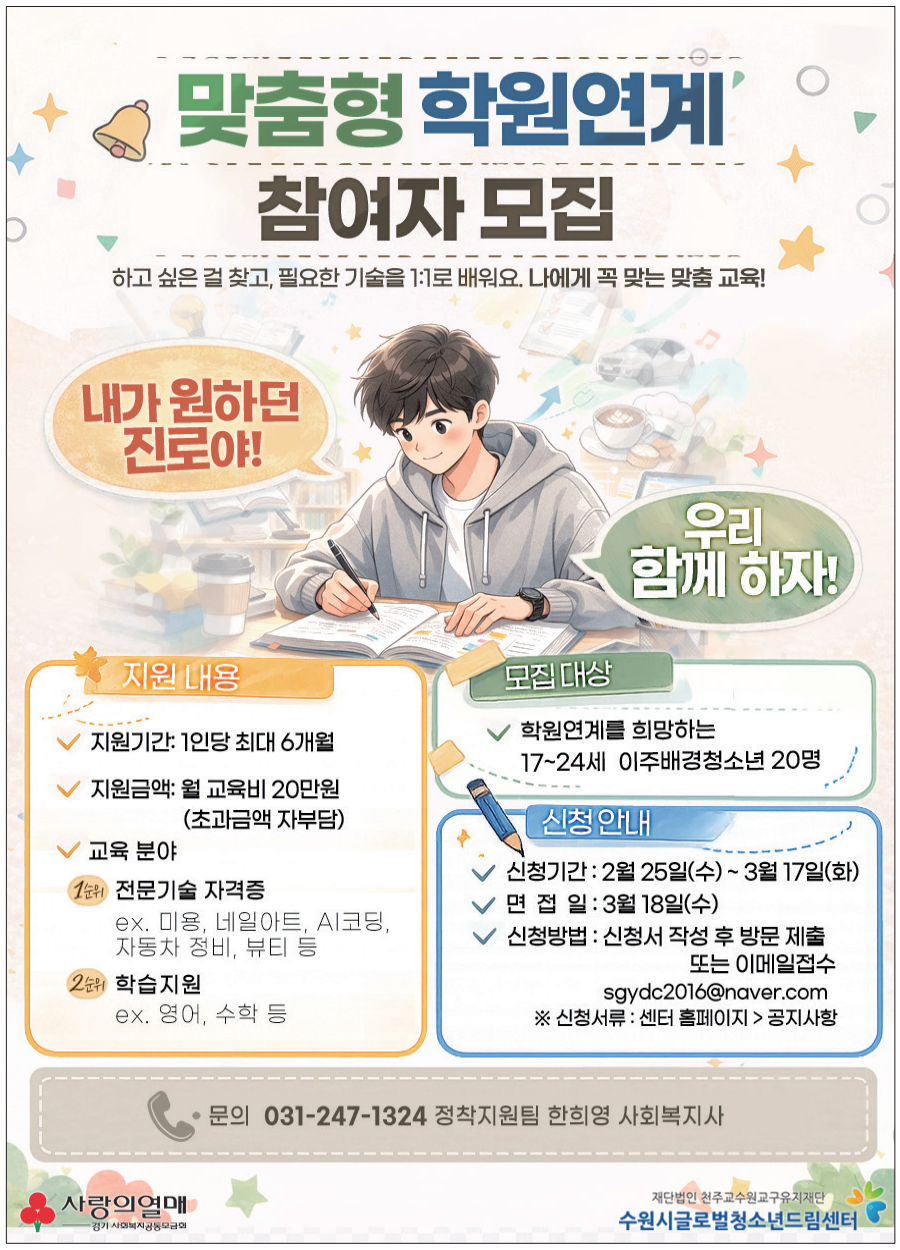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반 별 윷놀이 대항전을 통해 팀을 이루어 전략을 세우고 함께 경기에 임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배려심을 경험했으며, 선의의 경쟁과 응원이 어우러진 활동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들이 전통 놀이를 매개로 소통함으로써 학생 간, 강사와 학생 간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정말 재미있는 활동이었고 반의 단합을 키울 수 있었다.", "윷놀이를 할 때 모두가 함께 모이고 윷들이 땅에 떨어질 때의 청아한 소리는 사람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윷을 던질 때 많이 웃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향후 총 5회기에 걸쳐 SDGs(기후변화·환경·식량), 문화다양성 체험 및 지역사회 내 세계문화유산 탐방 등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031-247-1324

이지은 기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취업상담

수원다가와 영통여성새로일하기 연계 운영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2월 20일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F-2, F-5, F-6 비자 소지자 및 귀화자 결혼이민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취업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취업상담은 구직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담에서는 참여자들의 경력 및 자격사항을 바탕으로 한 1:1 맞춤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구직 방향 설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 가능 직종 안내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됐다.

또한 현재 채용 중인 일자리 정보와 직업훈련 과정 안내를 통해 참여자들이 구체적인 취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구직 신청이 이루어져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담이 진행됐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사례관리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결혼이민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 능력이다. 초급 한국어만 구사할 수 있다면 일자리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상급 이상 한국어 실력을 갖춰야 결혼이민자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가능하다.

송하성 기자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익적 주민조직!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국가별 교민회 대표 지도력 교육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22일 시흥에코센터 중등교육실에서 재시흥 국가별 교민회 8개국 대표 20여 명을 대상으로 지도력(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주관으로 2026년 교민회 운영을 앞두고 대표단의 책임성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친목 중심의 모임을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익적 주민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운영 역량 강화 방안과 회원 관리 체계, 각종 사업 참여 시 요구되는 책임 있는 자세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민회 간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팀 단합 프로그램을 통해 각 교민회의 운영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의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결 센터장은 "교민회는 이주배경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이번 교육이 교민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대표단이 책임 있는 지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운영을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시흥시, 다-가치 유스센터 '드림스쿨' 강사 공개 모집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과 학습 지원을 위해 다-가치 유스센터 '드림스쿨'에서 근무할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드림스쿨'은 시흥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다-가치 유스센터 내 학점인정이 되는 위탁교육 기관으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보통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해 이주배경청소년의 공교육 조기 복귀와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강사 모집은 2026년 드림스쿨 운영에 앞서 교육 전문성과 현장 역량을 갖춘 우수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집 분야는 ▲한국어(2명) ▲한국사(1명) ▲공통수학(1명) ▲공통영어(1명) ▲실용한국어(회화·읽기·쓰기)(1명) ▲창의체험(진로·심리상담)(1명) 등 총 6개 과목으로, 모두 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지원서 신청은 2월 27일부터 3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최종 합격자는 3월 17일 개별 통보 및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시는 이번 강사 공개 모집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언어 · 학습 · 정서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드림스쿨 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031-310-3009

송하성 기자

시흥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추진...에어컨 무상 설치, 생활밀착형 복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여름철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벽걸이형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다.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을 통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흥시는 올해 총 45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3월 6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장애인, 고령자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기존에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의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다.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냉방 지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시는 에너지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시흥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26가구에 에어컨을 지원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31-310-3673 송하성 기자





구리시, 영유아 양육지원 프로그램!

영유아케어센터 의견 청취...다문화가족도 이용해요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월 24일 구리시 영유아케어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이용 환경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백경현 시장이 직접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구리시 영유아케어센터는 2023년 10월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나눔동 1층에 조성된 시설로, 지역 내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양육지원 공간이다. 감각·신체 발달을 고려한 놀이시설과 보호자가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나이별 활동이 가능한 신체·창작·체험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센터에서는 자녀 양육 상담, 실내 놀이공간 제공,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발달검사 및 긴급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보호자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리시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냉난방비, 공기청정기 대여비 지원 등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영양식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 가정의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후생 복지비와 장기근속 수당, 안전공제회비,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육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갈매동과 인창동에 설치된 아이러브맘카페를 통해 보호자 상담, 부모 교육, 놀이 프로그램 등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갈매동 아이러브맘카페에서는 장난감 대여뿐만 아니라 유모차 소독기와 돌·백일상 용품 대여사업도 운영하며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보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도 구리시의 다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백경현 구리시장은 "아이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설 이용 과정의 불편 사항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으며, 구리시는 이를 반영해 이용 편의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문화예술 동아리 창작·문화 확산

구리시,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선정 시작



구리시(시장 백경현) 갈매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공모'에 2월 24일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도서관에는 동아리 운영비와 강사비 등이 지원된다. 갈매도서관에서 선정된 동아리는 청소년 웹툰 창작 동아리 '컷앤컷'과 대표 독서동아리 '갈매서가'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신설 동아리 '컷앤컷'은 웹툰 기획부터 제작, 편집까지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이 제작한 작품을 책으로 엮어 발간할 계획이다. 독서동아리 '갈매서가'는 구리시 지역 정서와 어울리는 도서를 직접 선정하고 비평하는 도서 큐레이션 활동을 진행하며, 그 성과를 '우리동네 독서지도'로 제작해 공유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은 시민의 창의성과 참여를 끌어내는 중요한 문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본격 추진되며,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갈매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구리시, 소규모 노후주택 개선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6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도 지속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준공 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규모는 단독주택은 최대 1,200만 원, 공동주택 공용시설은 옥상 방수, 도장·도색, 균열 보수 등 노후 시설물의 수선·교체 비용으로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구리시,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하는 여가 공간 확충해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월 24일 「펫 테마파크 설치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갈매협동공원 반려동물 놀이터'를 방문해 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다.

「펫 테마파크 설치 확대」 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 수요에 부응하고,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시는 기존 1개소에 불과하던 반려동물 놀이터를 갈매동, 인창동, 수택동, 토평동 등 총 4개소로 확대 조성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반려동물 복지 기반을 확충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백경현 시장은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시민 만족도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 등 보완 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반려동물 놀이터는 단순한 유희 공간을 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Hiệp hội các thành phố đa văn hóa trên toàn quốc cũng có thể giới thiệu người nhập cư theo diện nhập quốc tịch đặc biệt dành cho nhân tài xuất sắc



Bộ tư pháp (Bộ trưởng 정성호) đã quyết định mở rộng đối tượng có quyền tiến cử đối với diện nhập quốc tịch đặc biệt dành cho nhân tài xuất sắc, đồng thời nới lỏng điều kiện nhập quốc tịch đặc biệt đối với đồng bào ở nước ngoài.

Theo đó, Bộ tư pháp cho biết đã sửa đổi và ban hành thực hiện từ ngày 11/2 Thông báo về "Tiêu chí đánh giá và việc tiến cử đối với diện nhập quốc tịch đặc biệt dành cho nhân tài xuất sắc" vào ngày 11/2 vừa qua.

Chế độ "Nhập quốc tịch đặc biệt dành cho nhân tài xuất sắc" là chế độ cho phép người nước ngoài hoặc đồng bào ở nước ngoài, nếu được công nhận có năng lực đặc biệt xuất sắc trong các lĩnh vực như khoa học, kinh tế, văn hóa, thể thao… và được đánh giá là có thể đóng góp cho lợi ích quốc gia, thì sau khi trải qua quá trình thẩm định của Ủy ban Thẩm định Quốc tịch thuộc Bộ tư pháp sẽ được cấp quốc tịch Hàn Quốc (được công nhận song tịch).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p quốc tịch đặc biệt phải được công nhận có giải thưởng mang tầm quốc tế hoặc có thành tích nghiên cứu nổi bật, hoặc nhận được sự tiến cử của người đứng đầu các cơ quan hành chính trung ương. Kể từ năm 2011 đến nay, tổng cộng 428 người đã nhập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ông qua chế độ này.

Để tích cực thu hút nhân tài xuất sắc trong lĩnh vực khoa học – công nghệ, Bộ tư pháp đã sửa đổi thông báo, trao quyền tiến cử nhập quốc tịch đặc biệt cho người đứng đầu 19 cơ quan nghiên cứu do Chính phủ tài trợ trong lĩnh vực khoa học – công nghệ, bao gồm 한국과학기술연구원 và các cơ quan khác.

Ngoài ra, cơ quan này cho biết sẽ ưu đãi đối với đồng bào có sự tương đồng cao về lịch sử và văn hóa, đồng thời nới lỏng hơn các điều kiện áp dụng diện nhập quốc tịch đặc biệt dành cho nhân tài xuất sắc đối với đồng bào, nhằm giúp các nhân tài là đồng bào có thể duy trì song tịch và đóng góp cho lợi ích quốc gia.

Theo thông báo đã được sửa đổi, đối với đồng bào, ngay cả khi hiện không làm việc trong nước, nếu thông qua kinh nghiệm công tác trước đây… được công nhận có khả năng đóng góp cho lợi ích quốc gia, thì vẫn có thể được xem xét nhập quốc tịch theo diện đặc biệt. Theo đó, chế độ này đã được cải thiện theo hướng linh hoạt hơ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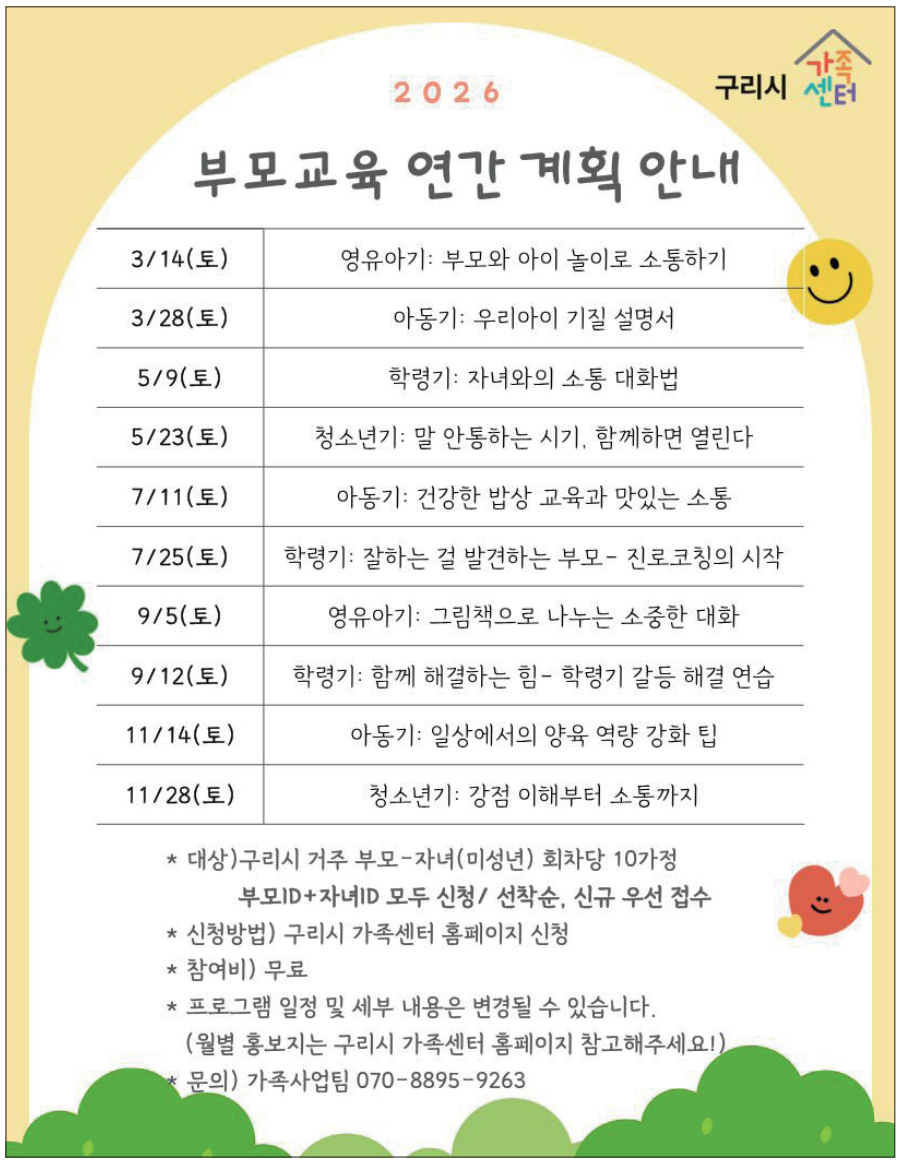
Ngoài ra, các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việc vận hành chế độ nhập quốc tịch đặc biệt dành cho nhân tài xuất sắc cũng đã được sửa đổi, như việc cho phép trao quyền tiến cử cho người đứng đầu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mới đủ điều kiện trở thành thành viên của Hiệp hội các thành phố đa văn hóa trên toàn quốc.

Tuy nhiên, tiêu chuẩn cụ thể về tư cách tiến cử của các thành phố thành viên Hiệp hội các thành phố đa văn hóa trên toàn quốc hiện vẫn chưa được công bố rõ ràng.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정성호, cho biết:

"Thông qua việc cải thiện chế độ lần này, chúng tôi hy vọng các nhân tài xuất sắc ở nước ngoài, bao gồm cả đồng bào, sẽ có thể hoạt động tích cực hơn với tư cách là thành viên của xã hội chúng ta. Bộ Tư pháp cũng sẽ tiếp tục thúc đẩy chính sách nhập cư và quốc tịch một cách linh hoạt và chủ động trong thời gian tới." 〈한글 기사 22면〉

파파야스토리







음악 놀이로 기초 음악개념 익혀요
공동육아나눔터1·4호점 "꿈꾸는 꼬마탐험가"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가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4호점은 지난 2월 2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유아와 부모 32명을 대상으로 신한금융재단,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유「유아 창의교육-꿈꾸는 꼬마탐험가」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리듬나라로 떠나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 바다 마을', '보석이 가득한 숲속마을', '거인이 사는 땅의 마을' 등 다양한 주제로, 스토리 기반의 단계별 음악 활동이 진행됐다. 아이들은 음악 놀이를 통해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연주 경험을 통해 박자와 소리의 크기 등 기초 음악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또한 일상 속 물건의 소리를 탐색하는 활동을 통해 감각통합 능력과 소리 구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보호자와 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아이들이 여러 회차에 걸쳐 참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앉아서 집중하는 연습이 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문의 031-654-0903 송하성 기자

평택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한국 명절음식 만들기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바르게살기운동 안중읍위원회 회원들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한국 명절 음식 '모듬전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평택시 서부권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28명과 바르게살기운동 안중읍위원회 회원 20명이 참여해 모듬전 만들기 활동을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한국의 명절 문화를 미리 체험하고, 직접 만든 모듬전을 안중읍 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였다. 이를 통해 봉사의 기쁨을 나누고 지역주민 간 유대감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는 "직접 전을 부치며 혼자 명절을 보낼 이웃을 떠올리게 됐다. 따뜻한 명절 나눔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오늘 배운 레시피로 가족과 함께 전을 만들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31-660-7471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상담 1차 사례회의...상담사 전문성, 역량 강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2월 13일 센터 가족상담사를 대상으로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상담 1차 사례회의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였다.

이번 사례회의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상담사의 전문성 강화와 상담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진행된 1회기 사례회의에서는 부부 의사소통 문제를 주제로 실제 상담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부부 이마고 대화 접근모델'을 적용하여 부부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관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 개입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 참여자들은 "사례회의를 통해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실제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여러 상담자의 관점을 듣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등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연 6회의 정기적인 가족상담 사례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가족상담사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보다 질 높은 가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Города–члены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вета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городов также могут рекомендовать мигрантов для специальной натурализации талантлив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министр Чон Сон Хо)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расширить круг лиц, имеющих право рекомендовать кандидатов на специальную натурализацию талантлив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а также смягчить требования для специальной натурализац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Фото = Papaya Story>

В связи с этим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ообщило, что 11 февраля было пересмотрено и введено в действие с этой же даты уведомление «О критериях оценки и порядке рекомендации для специальной натурализации талантлив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истема «специальной натурализации талантлив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разрешением двой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после рассмотрения Комитетом по вопросам гражданства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если иностранный гражданин ил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обладает выдающимися способностями в определённых областях — науке, экономике, культуре, спорте и др. — и признано, что он может внести вклад в 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Кандидаты на специальную натурализацию должны иметь международно признанные награды или научные достижения либо получить рекомендацию руководителя центра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ргана и т.п. С 2011 год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428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гражданство Кореи по этой системе.

Для активного привлечения талантлив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внесло изменения в уведомление, предоставив право рекомендации руководителям 19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ключая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наук и технологий.

Кроме того, было заявлено, чт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имеющим высокую историческую и культурную близость,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приоритет, а требования к специальной натурализации для талантлив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в более мягком виде,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сохранять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 вносить вклад в 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Согласно пересмотренным положениям,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истема улучше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специаль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возможна даже если он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е работают в Корее,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на основе их прошлой карьеры признаётся потенциал вклада в 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Кроме того, были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позволяющие предоставлять право рекомендации также главам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статус членов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вета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городов, а также пересмотрены други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м системы специальной натурализации талантлив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Однако конкретные критерии права рекомендации для городов–членов этого совета пока чётко не объявлены.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Чон Сон Хо отметил: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благодаря этим изменениям системы талантливые иностр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включа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могут более активно работать в качестве членов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и впредь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гибкую и активную иммиграционную и гражданскую политику».

〈한글 기사 22면〉

파파야스토리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

สมาชิกเมืองของสมาคมเมืองพหุวัฒนธรรมแห่งชาติ สามารถเสนอชื่อผู้ย้ายถิ่นที่เป็นบุคคลากรศักยภาพสูงเข้ารับการพิจารณาแปลงสัญชาติ แบบพิเศษได้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รัฐมนตรี จอง ซองโฮ) มีมติขยายขอบเขตผู้มีสิทธิ์เสนอชื่อสำหรับการแปลงสัญชาติแบบพิเศษแก่บุคลากรศักยภาพสูง และผ่อนปรนเงื่อนไขการแปลงสัญชาติแบบพิเศษสำหรับชาวเกาหลีในต่างแดน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เปิดเผยว่า เมื่อวันที่ 11 กุมภาพันธ์ที่ผ่านมา ได้มีการแก้ไขและเริ่มบังคับใช้ 「ประกาศว่าด้วยหลักเกณฑ์การประเมิน และการเสนอชื่อเพื่อการแปลงสัญชาติแบบพิเศษสำหรับบุคลากรศักยภาพสูง」 โดยมีผลบังคับใช้ตั้งแต่วันที่ 11 กุมภาพันธ์เป็นต้นไป

ระบบ 「การแปลงสัญชาติแบบพิเศษสำหรับบุคลากรศักยภาพสูง」 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ที่เปิดโอกาส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หรือชาวเกาหลีในต่างแดน ซึ่ง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โดดเด่นอย่างยิ่งในสาขาเฉพาะ อาทิ วิทยาศาสตร์, เศรษฐกิจ, วัฒนธรรม, และกีฬา และได้รับการยอมรับว่าสามารถมี ส่วนสนับสนุนประโยชน์แห่งชาติ เข้ารับการพิจารณาจาก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พิจารณาสัญชา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เพื่อให้ได้รับ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 (โดยอนุญาตให้ถือสองสัญชาติได้)

ผู้มีสิทธิ์ยื่นขอแปลงสัญชาติแบบพิเศษจะ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ยอมรับจากรางวัลระดับนานาชาติที่มีเกียรติหรือผลงานวิจัยที่โดดเด่น หรือได้รับ การเสนอชื่อจากหัวหน้าหน่วยงานบริหารส่วนกลางของรัฐ และนับตั้งแต่ปี 2011 เป็นต้นมา มีบุคคลรวมทั้งสิ้น 428 คน ที่ได้รับสัญชาติ เกาหลีผ่านระบบดังกล่าว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แก้ไขประกาศ เพื่อมอบอำนาจเสนอชื่อการแปลงสัญชาติแบบพิเศษแก่ผู้อำนวยการของสถาบันวิจัยภาครัฐในสาขา วิทยาศาสตร์และเทคโนโลยี จำนวน 19 แห่ง อาทิ สถาบันวิจัยวิทยาศาสตร์และเทคโนโลยีแห่งเกาหลี เพื่อเดินหน้าดึงดูดบุคลากรศักยภาพสูง ด้านวิทยาศาสตร์และเทคโนโลยีอย่างจริงจัง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ได้ระบุว่าจะให้สิทธิพิเศษแก่ชาวเกาหลีในต่างแดนที่มีความใกล้ชิดทาง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และวัฒนธรรม พร้อมทั้งผ่อนปรนเงื่อนไข การแปลงสัญชาติแบบพิเศษสำหรับบุคลากรศักยภาพสูงที่เป็นชาวเกาหลีในต่างแดน ให้สามารถรักษาสองสัญชาติไว้ได้ควบคู่กับ การมีส่วนสนับสนุนประโยชน์แห่งชาติ

ตามประกาศฉบับแก้ไข ระบุว่า ในกรณีของชาวเกาหลีในต่างแดน แม้ปัจจุบันจะมิได้ปฏิบัติงานอยู่ภ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 แต่หากมีประวัติการทำงาน หรือประสบการณ์ในอดีตที่ได้รับการยอมรับว่าสามารถมีส่วนสนับสนุนประโยชน์แห่งชาติได้ ก็สามารถยื่นขอแปลงสัญชาติแบบพิเศษได้ โดยมีการ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ให้รองรับหลักเกณฑ์ดังกล่า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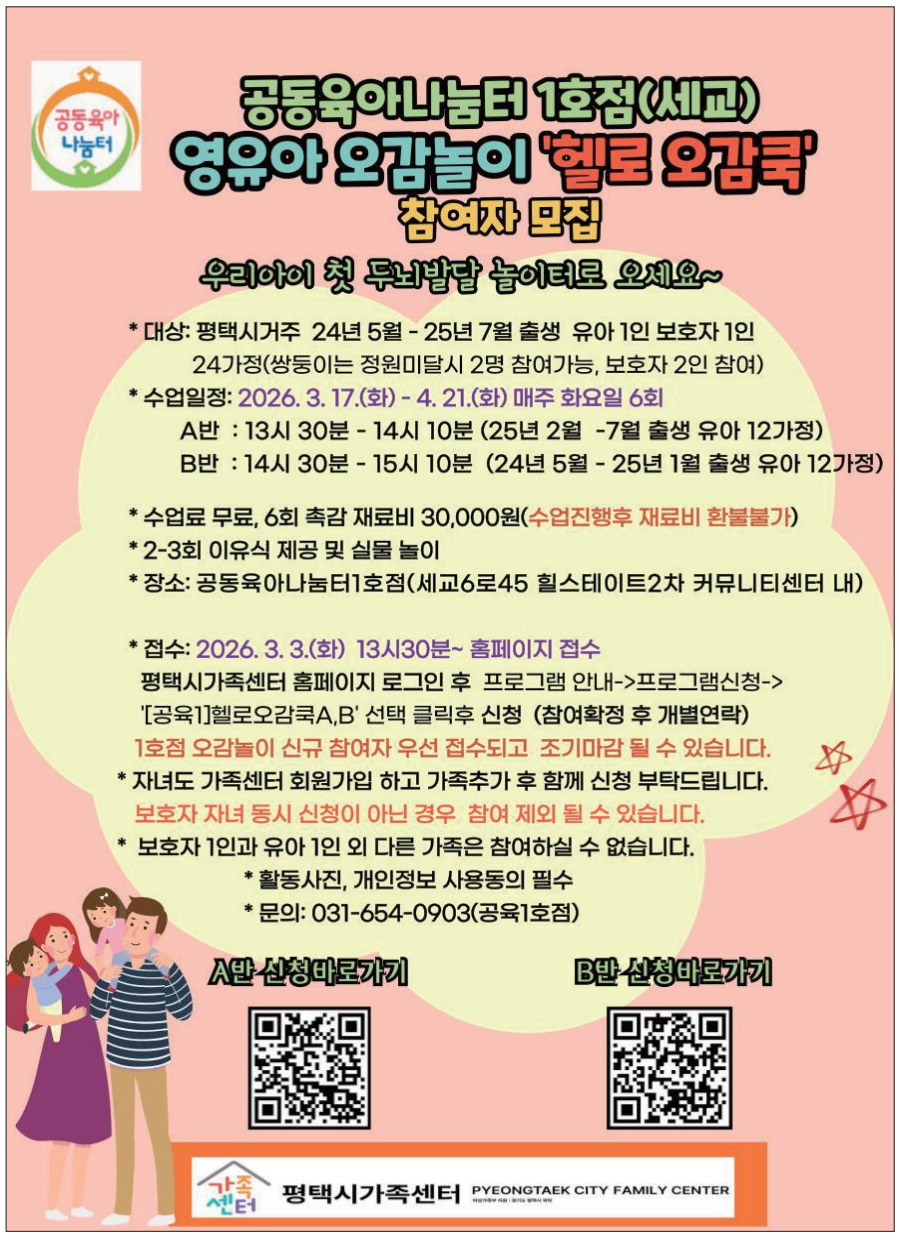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ได้มีการแก้ไขรายละเอียด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ของระบบการแปลงสัญชาติแบบพิเศษสำหรับบุคลากรศักยภาพสูง โดยเปิดทางให้ผู้ว่าราชการองค์กรปกครองส่วนท้องถิ่นที่เพิ่งได้รับคุณสมบัติเป็นสมาชิกเมืองของสมาคมเมืองพหุวัฒนธรรมแห่งชาติ 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อำนาจเสนอชื่อได้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คุณสมบัติของการเป็นผู้เสนอชื่อในฐานะสมาชิกเมืองของสมาคมเมืองพหุวัฒนธรรมแห่งชาติ ยังไม่ได้มีการชี้แจงอย่างชัดเจนในขณะนี้

จองซองโฮ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กล่าวว่า "ผ่านการ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ในครั้งนี้ หวังว่าบุคลากรศักยภาพสู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รวมถึง ชาวเกาหลีในต่างแดน จะสามารถทำกิจกรรมและมีบทบาทในฐานะสมาชิกของสังคมเกาหลีได้อย่างเข้มแข็งยิ่งขึ้น และ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จะเดินหน้าผลักดันนโยบายด้านการย้ายถิ่นและสัญชาติอย่างยืดหยุ่นและเชิงรุกต่อไป" 〈한글 기사 22면〉

파파야스토리


2026년 아버지역할지원사업
함께 자라는 아버지 학교
아버지 교육
유아기 편
친구같은 아빠를
위한 놀이 코칭
신청 바로가기
모집대상
유아기(5~7세)
자녀를 둔 아버지 10명
교육일시
2026.3.14.(토)
13:00~15:00
교육장소
평택시가족센터 108호 강의실
(서정로295, 복부복지타운 1층)
교육내용
기다려주는 아빠,
자율성 & 놀이코칭 팁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문의
가족지원팀
031-615-3965
★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생애주기별 아버지교육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교육 참여 시 자녀 동반은 어려운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 자녀 연령이 교육 대상에 맞지 않거나 중복 신청한 경우, 신청은 대기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유아기 아버지교육에 참여하신 분께는, 추후 진행 예정인 아버지-유아 자녀(5~35개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우선 신청 가능합니다.
평택시가족센터


2026년 아버지역할지원사업
함께 자라는 아버지 학교
아버지 교육
청소년기 편
거리 두는 아이,
연결하는 아빠
신청 바로가기
모집대상
청소년기(12~19세)
자녀를 둔 아버지 10명
교육일시
2026.3.21.(토)
13:00~15:00
교육장소
평택시가족센터 108호 강의실
(서정로295, 복부복지타운 1층)
교육내용
간섭보다는 지지,
갈등을 줄이는 소통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문의
가족지원팀
031-615-3965
★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생애주기별 아버지교육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교육 참여 시 자녀 동반은 어려운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 자녀 연령이 교육 대상에 맞지 않거나 중복 신청한 경우, 신청은 대기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기 아버지교육에 참여하신 분께는, 추후 진행 예정인 아버지-청소년 자녀(12~19세) 체험활동 프로그램 우선 신청 가능합니다.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세교)
영유아 오감놀이 '헬로 오감쿡'
참여자 모집
우리아이 첫 두뇌발달 놀이터로 오세요~
* 대상: 평택시거주 24년 5월 - 25년 7월 출생 유아 1인 보호자 1인
24가정(쌍둥이는 정원미달시 2명 참여가능, 보호자 2인 참여)
* 수업일정: 2026. 3. 17.(화) - 4. 21.(화) 매주 화요일 6회
A반 : 13시 30분 - 14시 10분 (25년 2월 -7월 출생 유아 12가정)
B반 : 14시 30분 - 15시 10분 (24년 5월 - 25년 1월 출생 유아 12가정)
* 수업료 무료, 6회 촉감 재료비 30,000원(수업진행후 재료비 환불불가)
* 2-3회 이유식 제공 및 실물 놀이
* 장소: 공동육아나눔터1호점(세교6로45 힐스테이트2차 커뮤니티센터 내)
* 접수: 2026. 3. 3.(화) 13시30분~ 홈페이지 접수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신청->
'[공육1]헬로오감쿡A,B' 선택 클릭후 신청 (참여확정 후 개별연락)
1호점 오감놀이 신규 참여자 우선 접수되고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자녀도 가족센터 회원가입 하고 가족추가 후 함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보호자 자녀 동시 신청이 아닌 경우 참여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1인과 유아 1인 외 다른 가족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활동사진, 개인정보 사용동의 필수
* 문의: 031-654-0903(공육1호점)
A반 신청바로가기
B반 신청바로가기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CITY FAMILY CENTER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고덕)
영유아 오감놀이 '헬로 오감쿡'
참여자 모집
우리아이 첫 두뇌발달 놀이터로 오세요~
* 대상: 평택시거주 24년 5월 - 25년 7월 출생 유아 1인 보호자 1인
24가정(쌍둥이는 정원미달시 2명 참여가능, 보호자 2인 참여)
* 수업일정: 2026. 3. 18.(수) - 4. 22.(수) 매주 수요일 6회
A반 : 10시 - 10시 40분 (25년 2월 -7월 출생 유아 12가정)
B반 : 11 시 - 11시 40분 (24년 5월 - 25년 1월 출생 유아 12가정)
* 수업료 무료, 6회 촉감 재료비 30,000원(수업진행후 재료비 환불불가)
* 2-3회 이유식 제공 및 실물 놀이
* 장소: 공동육아나눔터2호점(고덕 국제대로 202 르플로랑@ 내)
* 접수: 2026. 3. 4.(수) 10시30분~ 홈페이지 접수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신청->
'[공육2]헬로오감쿡A,B' 선택 클릭후 신청 (참여확정 후 개별연락)
2호점 오감놀이 신규 참여자 우선 접수되고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자녀도 가족센터 회원가입 하고 가족추가 후 함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보호자 자녀 동시 신청이 아닌 경우 참여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1인과 유아 1인 외 다른 가족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활동사진, 개인정보 사용동의 필수
* 문의: 031-611-0308(공육2호점)
A반 신청바로가기
B반 신청바로가기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CITY FAMILY CENTER

'취약가족 맞춤형 지원 역량 강화'

평택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보듬매니저 OT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2026년 온가족보듬사업에 참여하는 보듬매니저 8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9일 '2026년 온가족보듬사업 보듬매니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온가족보듬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보듬매니저의 역할과 사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실무 기준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듬매니저는 향후 주 1회 이상 사례회의에 참여하며, 선정된 대상 가정에 직접 파견돼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긴급위기 지원 등 가족의 상황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이 안정적인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보듬매니저들은 온가족보듬사업의 취지와 운영 체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현장 활동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온가족보듬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보듬매니저 한 분 한 분의 세심한 관심과 실천이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평택시,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진행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월 입학을 앞둔 초·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확인 사업은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아동·청소년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항목을 완료하도록 권고하는 사업이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폴리오(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백신 등 4종이 대상이다.

중학교 입학생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6차(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파상풍/디프테리아 접종)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1차(여학생) 등 3종을 접종해야 한다.

올해 초·중학교 입학생을 둔 보호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자녀의 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송하성 기자

全国多文化城市协议会会员城市也可推荐优秀人才特别归化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

法务部(部长郑成浩)决定扩大"优秀人才特别归化"推荐权限,并放宽对同胞的特别归化条件。

法务部表示,已于2月11日修订并施行《优秀人才特别归化评价标准及推荐相关告示》。

"优秀人才特别归化"制度是指,外国人或海外同胞在科学、经济、文化、体育等特定领域具备卓越能力,并被认定有望为国家利益作出贡献,经法务部国籍审议委员会审议,可取得韩国国籍(允许保留双重国籍)的制度。

特别入籍对象必须获得国际权威的获奖或研究成果,获得认可或中央行政机关负责人等的推荐,2011年以后共有428人通过该制度获得了韩国国籍。

为了积极吸引科学技术领域的优秀人才,法务部修改了告示,赋予科学技术领域政府出资研究机构的韩国科学技术研究院等19个机构负责人特别入籍推荐权。

另外,优待具有较高历史和文化同质性的海外同胞,并放宽优秀人才同胞的特别归化条件,使其在保留双重国籍的同时为国家利益作出贡献。根据修改后的告示,即便海外同胞目前未在韩国国内任职,只要根据其过往经历等被认定具备为国家利益作出贡献的可能性,也可申请特别归化。 此外,还修改了向新获得全国多文化城市协议会会员城市资格的地方自治团体长赋予推荐权等优秀人才特别入籍制度运营相关的各种事项。不过,全国多文化城市协议会会员城市的具体推荐资格尚未明确公布。

法务部长官郑成浩表示:"希望通过此次制度的改善,包括海外同胞在内的外国优秀人才能够作为社会一员更加积极活跃地参与各项活动。法务部今后也将持续推进更加灵活、积极的移民与国籍政策。" 〈한글 기사 22면〉







내외국인 문화소통 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 설 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2월 11일 서부복지타운 4층 대강당에서 관내 다문화·비다문화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설 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지원하는 내·외국인 문화소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외국인 지역주민이 전통놀이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윷놀이, 비석치기, 딱지치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놀이를 스탬프 투어 형식의 체험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며 전통놀이의 재미를 경험하는 동시에, 팀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돼 행사 참여의 즐거움을 더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 다문화·비다문화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어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및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내·외국인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이지은 기자

지역사회 복지증진 힘모아

평택시가족센터, 평택역과 업무협약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2월 9일 한국철도공사 평택역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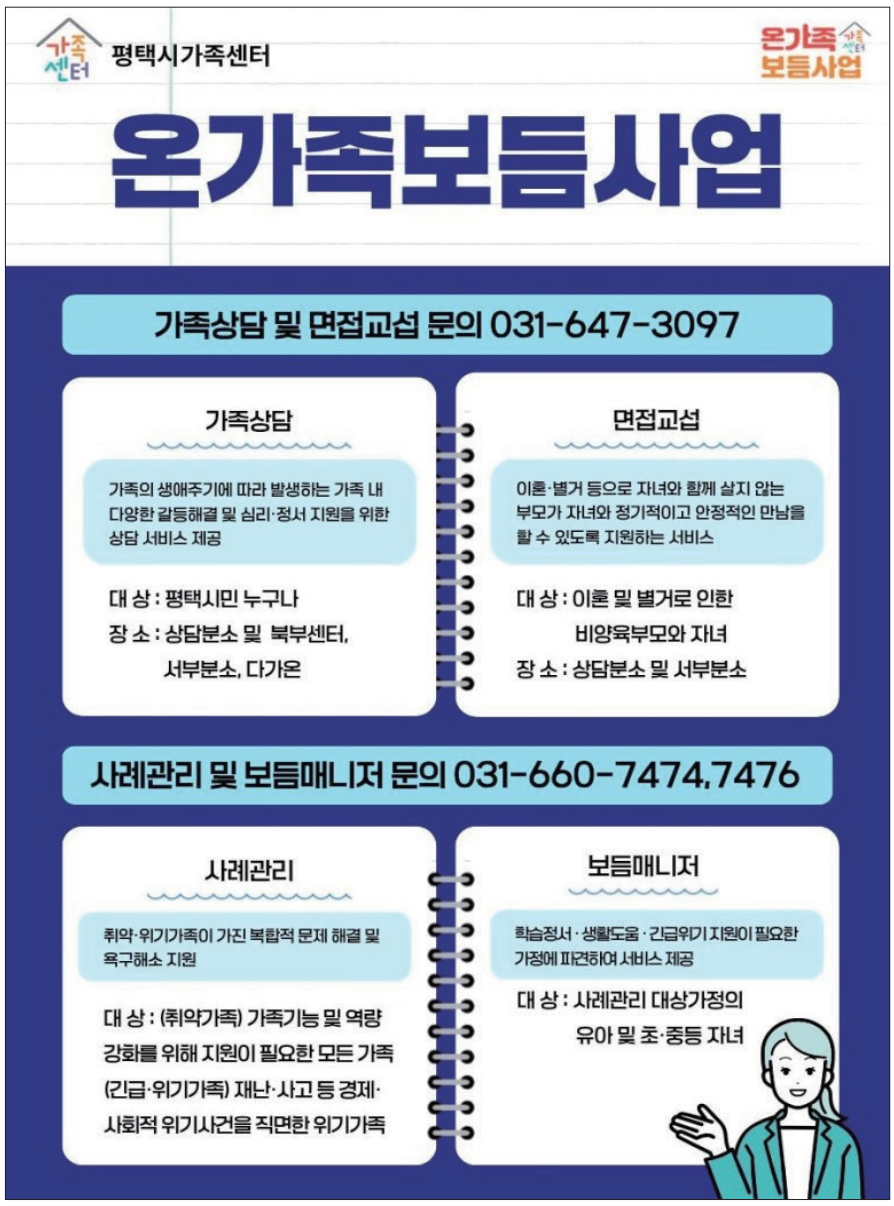
이번 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두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가족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연계·홍보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경태 평택역장은 "평택은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평택시가족센터는 지역 복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한국철도공사 평택역은 단순한 교통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공공서비스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공공교통의 거점인 한국철도공사 평택역과의 협력은 지역 내 다양한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양 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한국철도공사 평택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족 지원 사업 홍보 및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2026년 한국어교육 개강식 및 소방안전교육' 진행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2월 24일 오전,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어교육 수강생과 가족·지인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한국어교육 개강식 및 소방안전교육'을 개최했다.

2026년 한국어교육의 힘찬 시작을 알린 이날 행사는 센터 직원 소개, 주요 사업 및 제공 서비스 안내 등이 진행됐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수강생들이 교육 외에도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올해 한국어교육은 1단계부터 4단계, 고급반과 토픽반 등 수준별 세부 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레벨테스트와 성취도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반 배정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실생활 대화 중심의 교육과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이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강식 직후 진행된 사전교육에서는 실생활 밀착형 소방안전교육이 이어졌다. 교육에서는 '우리 집 화재 대피 요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방법'을 중심으로, 특히 언어 소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확한 위치와 재난 유형 전달법, 주변 지형지물 사진이나 신고 앱(App)을 활용한 다각도 신고 요령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통역 지원 서비스 이용법을 함께 교육해 신고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진 심폐소생술(CPR) 실습에서는 '깨우고-알리고-누르세요'라는 3대 핵심 수칙을 중심으로 골든타임 4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요청을 반영해 영유아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기도폐쇄 응급처치) 교육을 병행하여 가정 내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라오스 출신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날, 교육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어 매우 든든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한국어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언어교육과 실생활 안전, 생활 정보를 연계한 통합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31-793-2993 송하성 기자

하남, '1,000권 독서 챌린지'

하남시신장도서관은 시민의 지속적인 독서 참여와 생활 속 읽기 습관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9일부터 '1,000권 독서 챌린지'를 운영한다. 다문화가족도 참여해 보자.

이번 사업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가족 단위 참여와 청소년·성인 개인 참여로 구분해 진행된다. 도서를 읽고 반납할 때마다 스탬프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단계별 목표 달성 시 대출권수 확대와 연체무효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가족 참여자는 ▲50~99권 ▲100~199권 ▲200~499권 ▲500~999권 ▲1,000권 등 총 5단계로 운영되며, 개인 참여자는 ▲50~99권 ▲100~199권 ▲200~399권 ▲400~499권 ▲500권 등 5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 달성 시 연체무효 쿠폰과 대출권수 확대 등 혜택이 차등 지급된다.

특히 챌린지 완주자에게는 독서 인증서를 수여하고, 참여자 동의 시 도서관 내에 추천 도서와 이름을 게시해 성취감을 높이고 지역 독서 참여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도서관은 참여자에게 '독서 챌린지 북'을 제공해 읽은 책을 기록하고 스탬프를 모으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독서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참여 동기를 높이고, 장기적인 독서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하남시신장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31-5182-1031

이지은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오감 만족수업으로 학습 부담 낮추고 자기효능감 높여요"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하남시가족센터 3층 설레임실에서 다문화자녀 기초학습 대상자 9명의 창의·융합지원 수업으로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수업은 케이크 만들기 활동과 기초학습 요소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아동이 즐거운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글과 수학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수업에 참여한 아동들은 요리 과정에서 재료의 모양과 특성을 말로 표현해보고, 초코펜을 활용해 케이크 위에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직접 작성했으며 이를 통해 한글 쓰기와 표현 활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의사소통 능력을 확장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재료의 개수를 세고 필요한 수량을 맞춰보는 과정 속에서 수 개념을 체험적으로 익히며 기초 연산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제 풀이 중심이 아닌 실천적 활동을 통해 수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긍정적 학습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원했다.

아동들은 재료 선택과 꾸미기 활동을 스스로 결정하며 창의성을 발휘하였고, 자신만의 케이크를 완성하는 성취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아동도 비언어적 활동 중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기초학습 담당자는 "요리와 같은 생활 밀착형 활동은 학습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아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자녀의 기초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031-793-2993

송하성 기자

‘도시농업 텃밭’ 참여자 모집

과천시, 다문화가족도 농업 체험해요



과천시는 갈현동 과천시 도시농업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텃밭’ 분양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농업 텃밭은 시민이 도심 속에서 직접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과천시는 지난해 갈현동에 도시농업센터를 조성했으며, 이번 텃밭 분양을 시작으로 시민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과천시는 시민과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개인은 10㎡, 단체는 40㎡ 규모로 텃밭을 분양한다. 신청자 가운데 개인 40명, 단체 5곳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텃밭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3월 28일 개장한다. 개인 이용료는 5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체는 수확물의 50%를 지역사회에 나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과천시는 구획 정비 및 이름표 설치, 농업용수 공급 등 기반 시설을 갖추어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도시농업 텃밭이 시민들의 일상 속 쉼과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부부태교교실’ 참여자 모집

과천시 보건소, 예비 부모 50명 대상

과천시 보건소는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부부 태교 교실’ 참여자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예비 부모가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미리 익히고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다문화가족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법 △그림책 태교 △신생아 돌보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그림책 태교’는 올해 새롭게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임신 중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태교 방법을 안내한다. 신청은 보건소 누리집 공지 사항을 통해 하면 된다.

과천시 보건소는 주말 부부 태교 교실 외에도 임신부를 위한 출산 준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 임신부를 위해 평일 온라인 출산 준비 교실도 별도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모자건강팀(02-2150-3843, 3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과천시 보건소는 20일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구세군 양로원, 구세군 요양원, 과천행복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흉부 엑스선 촬영을 통한 결핵 검진과 함께 결핵 예방 수칙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보건소는 2주 이상 기침이나 가래, 발열,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는 점과 65세 이상 어르신은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만큼 연 1회 이상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결핵은 기침이나 가래 등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고령층에서 발병 위험이 크다.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송하성 기자





"다문화 아동의 건강한 의사소통 능력 키워요"

용인시가족센터, 언어발달 촉진 및 사회성 향상 '온가족언어놀이터'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가정 내 언어환경 조성을 위해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언어평가, 개별 언어지도, 부모교육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아동의 발달을 돕고,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21일 언어발달 지원사업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온가족 언어놀이터'가 진행됐다.

온가족언어놀이터는 부모와 함께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경험하고 가정 내 언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놀이, 대화, 신체활동, 자연체험 등을 통해 가족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 가족들은 "아이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랐는데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용인시가족센터는 발달이 느린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부모의 정서회복을 위한 부모코칭 프로그램(엄지척 언어척 부모되기2)을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온가족언어놀이터는 11월까지 매월 1회기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가정 내 언어환경 개선과 부모의 심리적 지지체계를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용인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행 시작

용인특례시는 3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앱)이나 전화 통화로 호출하는 '똑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DRT) 교통수단이다. 주요 운행 지역은 처인구 모현읍 전역의 버스 정류장과 삼계고등학교, 포곡읍행정복지센터다.

운행 차량은 4대로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운행한다.당일 차량 호출 마감 시간은 밤 10시다. 탑승을 원하는 시민은 전용 앱 '똑타'로 사전 예약하거나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688-0181)를 통해 호출하면 된다.

기본요금은 1천650원으로 똑타 앱에 연동한 교통카드로 지불한다.일반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 혜택도 동일하다.

송하성 기자

전자영 경기도의원, 공공생리대·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위한 재정 재구조화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집행부 질의에서 공공생리대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재정 재구조화를 촉구하며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실무 논의 의사를 확인했다.

전자영 의원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문일답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동시에 답변석에 세우고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물었다. 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월경권을 민생과 인권의 문제로 짚은 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공공생리대 확대와 여성청소년 지원을 강조한 점을 들어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화장실의 비상 생리대 비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보건실에 가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재정 격차로 인해 일부 청소년은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은 "현재 생리대 지원 예산은 공공시설은 도, 학교는 교육청, 청소년 지원은 도와 시·군으로 쪼개져 있다"며 "이 구조 속에서 도는 '시·군 협의', 교육청은 '도 사업', 시·군은 '재정부담'이 반복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에 "남양주·성남·고양·부천 등 4개 시·군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을 과연 '보편적 월경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임태희 교육감에게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여자화장실 비상 생리대 비치율은 약 57%에 불과하고 사실상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직접 투입해 개선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현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보편적 생리대 지원 방법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전 의원은 올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한 용인시 사례를 들어 "도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3대7이지만 실제로 올해 지원된 예산 내역을 보면 예산 반영률이 42% 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며 "실제 지원 대상 4만 6625명 중 일부만 지원받고, 결국 보편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돈의 문제, 예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현장에서는 정책과 예산에서 간극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더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다니든, 학교를 안 다니든 또는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보편적 지원에 접근하기 위해서 두 분이 머리를 맞대 실무 논의에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고 김동연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의사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와 임 교육감은 "실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자영 의원은 "행정이 우리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행정이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될지 작은 권한까지도 최대한 잘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논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같이 협치, 협력을 통해서 우리 보편적 지원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도 알면 도움 되는 광주 지역사회 다양한 소식!

광주시민장학회 장학생 선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등



장학생 302명 선발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는 2026년도 장학생 302명을 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총장학금 지급 규모는 7억 5천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도 물론 신청할 수 있다.

선발 분야는 4개 부문으로 일반 부문 대학생 77명, 진학 부문 대학생 30명, 복지 부문 대학생 103명, 특기 부문은 중·고·대학생 92명을 각각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27일까지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광주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세부 사항과 제출 서식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시민장학회(031-760-4855)로 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민장학회는 1999년 광주시 출연으로 설립돼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개인·기관·단체 등의 기탁금을 재원으로 장학금을 조성해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광주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검진 대상 연령을 기존 만 70세에서 만 80세로 확대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농작업으로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근골격계·심혈관계·골절 및 손상 위험도·폐기능·농약중독 검사 등 농작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검진을 2년 주기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51세부터 80세(1946~1975년 출생) 여성농업인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 303명이다.

검진비는 1인당 22만 원이며 이 중 90%를 지원해 대상자는 약 2만 2천 원의 본인부담금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과 오포1동 산업팀 또는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농업e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검진은 경안동 소재 참조은병원에 사전 예약 후 진행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광주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일정기간 동안 주행거리를 감축할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다. 올해 모집 규모는 550대로,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 대상이다. 소유자 1인당 1대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시민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2026년 상반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안내문

광주시가족센터에서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광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장 소 : 센터 제1교육장, 모두家교육장(배움터, 자람터)

교육단계		일 자	일 시	교육장소	비고
정규과정	기초반	2/24~6/30	매주 화·목 10:00~12:30	모두家교육장 자람터	대면교육
	즐거운한국어1	2/24~6/30	매주 화·목 10:00~12:30	모두家교육장 배움터	
	즐거운한국어2	2/24~6/30	매주 화·목 13:00~15:30	모두家교육장 배움터	
	즐거운한국어3	2/24~6/30	매주 화·목 13:00~15:30	모두家교육장 자람터	
	즐거운한국어 온라인 (고급)	2/24~6/30	매주 화·목 13:00~15:30		온라인
특별과정	발음교정반	4/7~6/30	매주 화·목 13:00~15:00	추후 공지	대면교육
	토픽반	4/7~6/30	매주 화·목 13:00~15:00		
	국적취득준비반	2/27~12/4	매주 금요일 10:00~12:00	가족센터 2층 교육장	

- 기관 사정으로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사전 신청(전화, 센터 방문)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 교 육 비 : 전액 무료(단, 교재비 본인 부담)
○ 문 의 : 한국어교육 담당자 ☎ 070-4706-3742

※ 온라인 및 특별과정
- 한국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 전 담당자 연락(070-4706-3742) 필수

광주시가족센터

Tổ chức hội thảo đầu tiên trong năm của “Dageonnet (다건넷)” nhằm tăng cường quyền về sức khỏe và quyền tiếp cận dịch vụ y tế cho người di cư tại tỉnh Gyeonggi



Những nỗ lực nhằm nâng cao khả năng tiếp cận dịch vụ y tế và bảo đảm quyền được chăm sóc sức khỏe cho người di cư đang được triển khai tại tỉnh Gyeonggi.

Tỉnh Gyeonggi và Trung tâm Hỗ trợ Hội nhập Xã hội Người Di cư tỉnh Gyeonggi đã tổ chức buổi hội thảo chính thức đầu tiên trong năm 2026 của “Mạng lưới Y tế Sức khỏe Cùng nhau Khỏe mạnh (Dageonnet (다건넷))” vào ngày 4 tháng 2 vừa qua.

“Dageonnet (다건넷))” là mạng lưới hợp tác y tế – chăm sóc sức khỏe cho người di cư với sự tham gia của các cơ quan công lập, cơ sở y tế, tổ chức dân sự, tổ chức tôn giáo và các cơ quan hỗ trợ. Mạng lưới này được vận hành nhằm chia sẻ các trường hợp người di cư đang nằm trong “vùng trống” về dịch vụ y tế và kết nối những vấn đề đó với chính sách.

Trước tình trạng số lượng tư vấn y tế cho người di cư gần đây gia tăng, tỉnh Gyeonggi đã lên kế hoạch tổ chức hội thảo Dageonnet (다건넷) nhằm xây dựng cơ chế hợp tác giữa khu vực công và tư.

Cuộc họp hôm đó gồm các nội dung: bổ nhiệm ủy viên mới (ông Yoo Sang-hyuk, Chủ tịch Ủy ban Mục vụ Di dân thuộc Ban Mục vụ Xã hội của Tổng Giáo phận Seoul, Giáo hội Công giáo), chia sẻ mô hình “Hội đồng kiểu Bệnh viện An tâm 안심병원” của các địa phương khác, thảo luận về kế hoạch xây dựng “Bệnh viện An tâm Gyeonggi 안심병원”, chia sẻ các trường hợp năm 2025 và thảo luận tự do.

Các bên liên quan đã chia sẻ định hướng triển khai công việc trong năm nay, đồng thời thảo luận các phương án cụ thể hóa mô hình hỗ trợ y tế cho người di cư phù hợp với đặc thù của tỉnh Gyeonggi.

Nội dung thảo luận chính gồm:▲ Sắp xếp, hoàn thiện lại lộ trình tiếp cận dịch vụ y tế cho người di cư ▲ Phân công vai trò giữa các cơ sở y tế và các cơ quan hỗ trợ ▲ Xây dựng cơ chế hợp tác công – tư bền vững.

Trong các trường hợp hợp tác, liên kết tiêu biểu năm 2025, đã giới thiệu việc hỗ trợ chi phí y tế cho các sản phụ di cư thuộc nhóm nguy cơ cao thông qua hợp tác với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cùng với việc hỗ trợ chi phí điều trị cho 12 người di cư thông qua liên kết với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Trường hợp sản phụ nguy cơ cao: trong quá trình khám thai tại bệnh viện địa phương, do phát hiện vấn đề sức khỏe của thai nhi nên cần gấp rút chuyển lên bệnh viện tuyến đại học. Tuy nhiên, do khó khăn trong việc liên kết giữa các cơ sở y tế và gánh nặng chi phí điều trị lớn, đã có nguy cơ xảy ra khoảng trống trong quá trình điều trị.

Trước tình hình đó, thông qua sự hợp tác giữa các cơ quan y tế công và tổ chức hỗ trợ trong khuôn khổ Dageonnet (다건넷), bệnh nhân đã được chuyển tuyến và tiếp nhận điều trị tại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đồng thời cũng được hỗ trợ chi phí y tế.

Đây được xem là một trường hợp tiêu biểu cho thấy cơ chế hợp tác công – tư đã vượt qua giới hạn ứng phó của từng đơn vị riêng lẻ để giải quyết vấn đề y tế cho người di cư.

Dựa trên các trường hợp đã được tích lũy, trong năm nay tỉnh Gyeonggi dự kiến sẽ từng bước mở rộng mạng lưới an sinh y tế cho người di cư thông qua việc:

▲ Phát hành báo cáo các trường hợp về quyền được chăm sóc sức khỏe của người di cư▲ Mở rộng chương trình đào tạo về quyền sức khỏe của người di cư dành cho đội ngũ nhân viên y tế▲ Xây dựng cơ sở dữ liệu các cơ sở y tế có khả năng khám, chữa bệnh cho người di cư.

Ông Kim Seong-hwan, Trưởng phòng Hỗ trợ Xã hội Người Di cư tỉnh Gyeonggi, cho biết: “Việc bảo đảm quyền được chăm sóc sức khỏe cho người di cư cũng chính là tăng cường mạng lưới an toàn y tế công cộng của toàn tỉnh Gyeonggi.”

Ông nhấn mạnh thêm: “Chúng tôi sẽ thúc đẩy chính sách để không có người di cư nào bị loại trừ khỏi dịch vụ y tế, thông qua việc tăng cường hợp tác công – tư lấy Dageonnet (다건넷) làm trung tâm.”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为加强京畿道移民健康与医疗权的&多健网&今年首次召开研讨会

京畿道为提升移民医疗可及性、保障健康权在不断努力。

京畿道和京畿道移民社会综合支援中心今年2月4日举行了"共同健康保健医疗网络(多健网)"2026年首次正式研讨会。

多健网是由公共机关、医疗机构、民间团体、宗教、支援机关等参与的移民保健医疗合作网络,旨在共享处于医疗死角地带的移民案例,并将其转化为政策加以落实。

京畿道最近随着移民医疗咨询的增加,为了构建民、官合作体系,策划了多健网讨论会。

当天的会议内容有委任新委员(天主教首尔大教区社会司牧局移居司牧委员会委员长柳相赫)、共享其他市道的"安心医院型协议体"模式及讨论"京畿道安心医院"构想、共享2025年事例、自由讨论等。各相关人士共享了今年事业推进方向,讨论了京畿道型移民医疗支援模式的具体化方案。

主要讨论内容包括▲完善移民医疗就诊路径▲明确医疗机关和支援机构之间角色分工▲构建可持续的公私合作结构。

2025年的主要合作与联动案例包括:与高丽大学安山医院合作,为高风险移民产妇提供医疗费用支持;以及与&绿色雨伞儿童基金会&合作,为12名移民提供医疗费援助。

高危产妇在地区医院妇产科诊疗中,由于胎儿的健康问题,急需转院到大学医院,但由于医疗机构之间的联系和高额医疗费问题,面临治疗空白的危机。通过多健网的公共医疗机构及支援机构的合作,成功转诊至高丽大学安山医院,医疗费也得到了支援。这可以说是突破个别机构应对局限,通过公私合作机制解决移民医疗问题的代表性案例。

京畿道计划以积累的案例为基础,今年推进▲发行移民健康权事例报告书▲扩大面向医务人员的移民健康权教育▲建立可为移民提供诊疗服务的医疗机构数据库等,阶段性地扩大移民医疗安全网。

京畿道移民社会支援科长金成焕(音)表示:"保障移民健康权是强化京畿道整体公共卫生安全网的事情","将以多健网为中心,加强民、官合作,推进政策,确保没有任何移民被排除在医疗体系之外。"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파파야스토리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 프로그램 본격 추진

광주시보건소, 3월 세계 비만 예방의 날 맞아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보건소는 3월 세계 비만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오는 3월 3일 탄벌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의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만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걷기 응용프로그램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실천 운동을 3월 한 달간 운영한다.

참여자는 16만 보 걷기와 건강계단 이용 사진 촬영 인증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중 응용프로그램 내에 비만 예방 관리사업 관련 건강 증진 정보를 게시해 비만 예방의 중요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기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도 상·하반기 각 12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고산하늘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다 함께 돌봄센터 12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신체 계측과 건강 습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놀이형 영양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기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2026년 학교밖 청소년 건강관리 프로그램 '아지트'(아이들을 지켜주는 건강 트랙)도 추진한다.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기 건강검진 참여율이 낮은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건강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비만, 영양 불균형, 신체활동 부족 등 주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기부터 형성된 건강한 생활 습관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된다"며 "3월 비만 예방의 날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광주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무료 상담 운영...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2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무료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센터 내 상담실에서 진행되며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1대1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 검사와 치료 방향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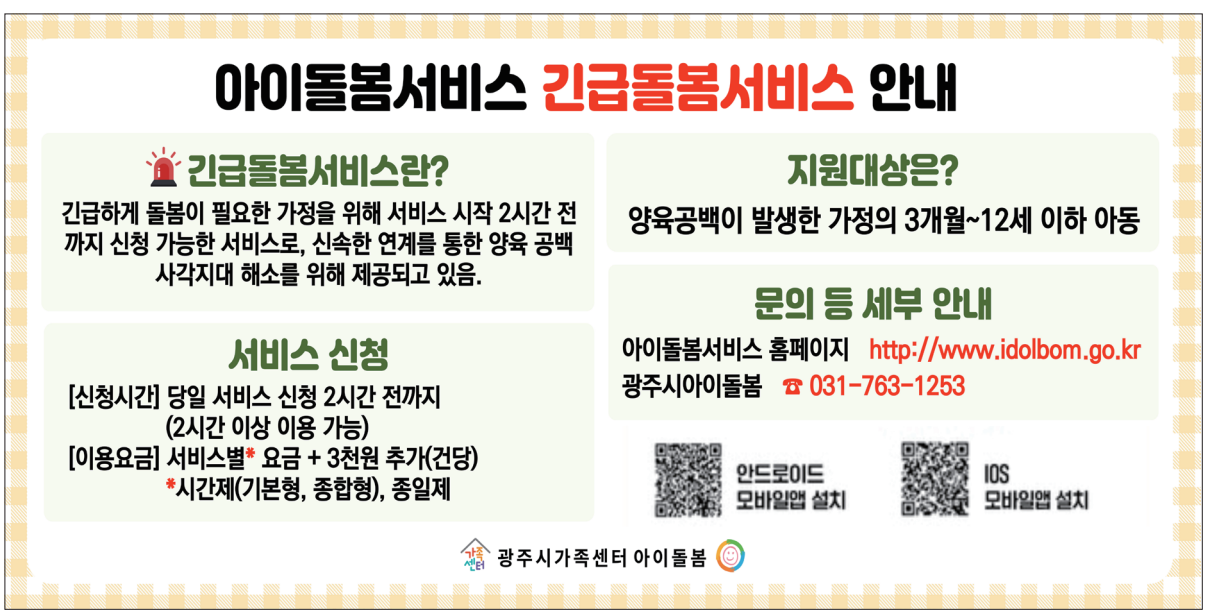
상담 결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 등 치료기관 정보를 안내하고 센터 등록을 통해 ▲정기 사례 관리 ▲지속 상담 ▲위기 개입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상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병의원 진료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시민이 알맞은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센터를 통해 안내한다.

이와 함께 센터는 ▲찾아가는 마음 건강 강좌 ▲광주시민 정신건강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및 노인 대상 맞춤형 교육 ▲자살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복지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장민호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은 전화(031-762-8728)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양평군, '통합돌봄도시'선정...의료·요양·주거 완성형 모델 선제 구축

돌봄에 이어 건강한 일상을 채우는 "양평 통합돌봄"...4가지 주요 사업 운영 예고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0일 경기도 '통합돌봄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3월에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양평군만의 특화형 통합돌봄 모델을 갖추려는 조치다.

양평군은 '양평, 다시 돌아온 봄(양평, 다돌봄)'이라는 사업명으로, 지역 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양평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한다.

주요 사업은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방문돌봄 주치의' ▲퇴원, 퇴소 후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일상복귀 돌봄집'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AIP 코디네이터'운영 등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평군은 '방문돌봄 주치의'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을 통한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며, '일상복귀 돌봄집'을 통해 재입원 및 시설 입소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AIP 코디네이터'을 통해 돌봄 대상자의 시설 입소 대신 살던 집에서 안정적 가정생활(AIP(Aging In Place))을 지원한다.

통합지원 서비스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조사·통합지원회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통합돌봄도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양평군이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군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12개 양평군 도서관, 2026년 북스타트 사업 본격 추진...다문화가족도 신청해요



양평군은 오는 3월 11일부터 '2026년 북스타트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북스타트 사업은 양평군이 주관하고 북스타트코리아가 후원하는 독서문화 확산 사업으로, 관내 임신부, 영유아 및 초등 2학년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책이 담긴 가방(책 꾸러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지역 사회 전반의 독서문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지참해 관내 도서관을 방문하면 된다.

임신부는 임신부 수첩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유아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자는 도서관 방문 후 배부대장을 작성하면 단계별 책 꾸러미를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도서관은 5개 공공도서관과 7개 공립 작은 도서관으로 양평, 양서, 용문, 지평, 양동도서관, 강상·옥천·서종작은도서관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계별 책 꾸러미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단월·개군·청운작은도서관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수령 가능하다

이경희 평생학습과장은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책과 자연스럽게 친숙해지고, 부모와의 소통과 유대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지원 정책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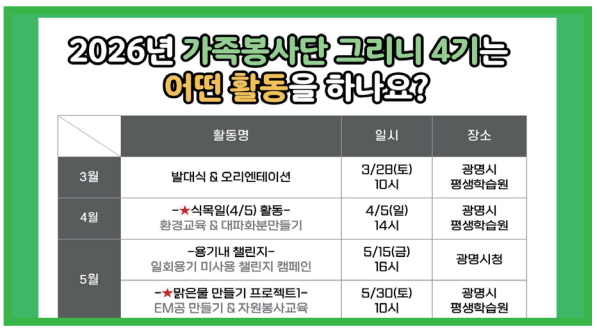






도움이 필요한 곳에 광명 가족이 직접 참여해 봉사활동!

2026년 광명시가족센터 친환경 가족봉사단 “그리니 4기” 참여 가족 모집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가족봉사단 그리니 4기’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족봉사단 ‘그리니’는 광명시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족이 직접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친환경 캠페인과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의식 개선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목표로 운영되는 가족 단위 봉사단체이며, 2023년도에 창단해 올해로 4년차인 광명시의 유일한 ‘친환경 가족봉사단’이다.

모집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족이며, 신규 참여 가족의 경우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은 온라인(https://forms.gle/7pPKEPa9ZPMg1HCaA)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3월 13일(금)까지 이다.

2026년 ‘그리니’ 4기는 3월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약 10개월간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나눔」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가족 체험형 봉사활동 및 교육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식목일 기념 환경교육 및 화분 만들기 ▲일회용품 미사용 챌린지 ▲EM 흙공 제작 및 하천 정화활동 ▲저탄소 식단 실천 활동 ▲유기동물 보호시설 봉사 ▲아나바다 캠페인 ▲숲 체험 워크숍 ▲연말 성과 공유 및 수료식 등이다.

광명시가족센터 남은정 센터장은 “가족봉사단 ‘그리니’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원봉사와 환경 실천을 경험하며 가족 유대감을 높이는 활동이다.”며, “환경과 나눔에 관심 있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가족센터는 다문화·한부모·일반가정·상담사업 등 가족 전체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광명시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02-6265-1366

송하성 기자

광명시, 3일부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외국인도 지원받아요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3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이며,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학교 입학일 기준(3월 3일)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다. 대안학교 입학생과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한다.

외국인의 경우 광명시에 체류지를 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중 1인이 할 수 있으며, 12월 11일까지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학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명시는 신청이 3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방문신청일을 분산 운영한다.

초등학생은 3월 3일부터, 중학생은 3월 9일부터, 고등학생은 3월 16일부터 신청받는다. 또한 관내 48개 학교와 협력해 가정통신문으로 입학축하금 안내문과 신청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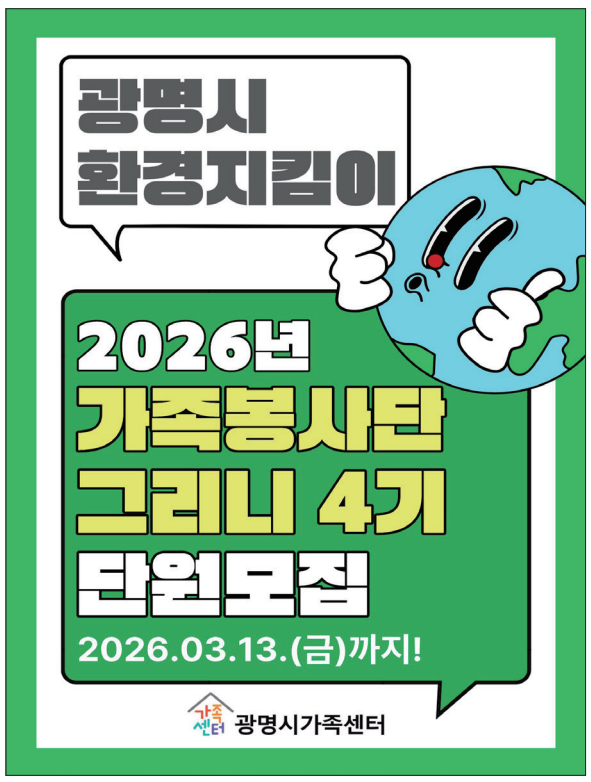
박승원 광명시장은 “입학축하금이 새로운 출발을 맞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민원콜센터(1688-3399), 광명시 교육청소년과(02-2680-21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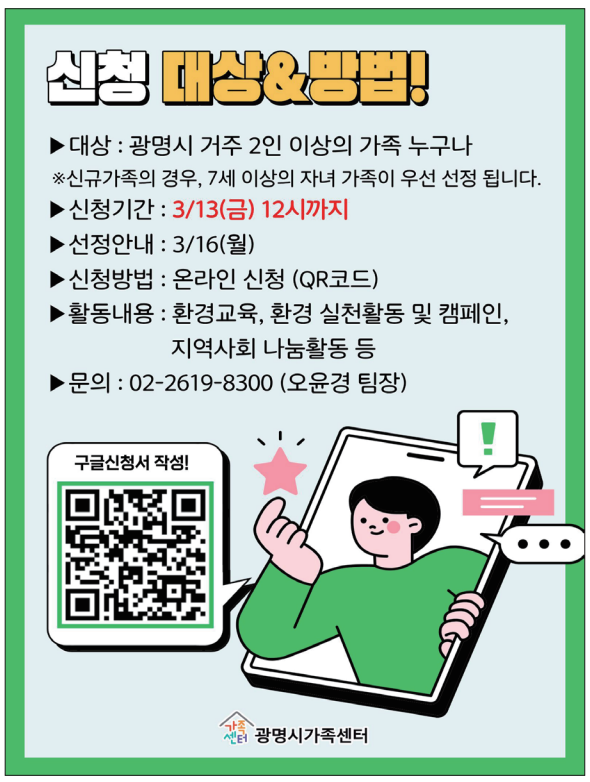
한편, 광명시 입학축하금 지원 정책은 2020년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해 2022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 2024년부터는 외국인 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폭넓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송하성 기자







HỖ TRỢ CT CON EM GĐ ĐVH CỦA TP GWANGMYEONG NĂM 2026

HỖ TRỢ HỌC TẬP CƠ BẢN



Quét mã QR để đăng ký!

HỖ TRỢ HỌC TẬP CƠ BẢN ?

Để nâng cao khả năng học tập và phát triển tốt hơn cho con em GĐ ĐVH, Trung tâm hỗ trợ chương trình học tập cơ bản môn tiếng Văn và Toán.

Thời hạn học tập: tháng 3~ tháng 12/2026
(nghỉ hè tháng 8, nghỉ đông tháng 12）

Đối tượng đăng ký： con gđ đvh tiểu học lớp 1~lớp 6
*(sau đó cần nộp giấy chứng nhận gđ đvh）

Địa điểm giáo dục:

	Tháng 3 ~ tháng 6	Tháng 7 ~ tháng 12
Địa điểm	연서도서관 문화교실1 (광명시 연서일로10)	광명시가족센터 (철산4동청사 예정)

Nội dung giáo dục:
- Môn Văn cơ bản， Toán cơ bản， lĩnh vực xã hội， tiếng hàn con nhập cảnh giữa chừng
- Giáo viên phụ trách dạy theo chia nhóm nhỏ tùy theo năng lực
- Triển khai học tập sáng tạo kết hợp giáo trình kỹ thuật số AI và các hoạt động đặc biệt.



☎ Liên hệ : Phụ trách 박희상 / 070-4725-2723

광명시가족센터

2026年光明市多文化家庭子女支援事业

基础学习



请通过 QR码申请!

基础学习是什么？
该活动为学龄期多文化家庭子女提供语文，数学基础学习课程，给予提升基础学习并助力其成长辅导。

基教育日期： 2026年3月~12月（预计8月，12月放假）
招 生 对 象： 多文化家庭子女小学1年级~6年级
（必须提交多文化家庭证明材料）

教育场所:

	3月~6月	7月~12月
教育场所	연서도서관 문화교실1 (광명시 연서일로10) 连瑞图书馆文化教室1 (位于光明市连瑞一路10号)	광명시가족센터 (철산4동청사 예정) 光明市家庭中心 (预定设在铁山4洞办事处)

教育内容：
- 基础语文，基础数学，社会领域，中途入韩国韩语
- 基础学习专职教师开展分层次、个性化的小组教学
- 运营与AI学科相融合的创造性学习及特别活动



☎咨询：박희상 负责老师 070-4725-2723

광명시가족센터

គម្រោងគាំទ្រសម្រាប់កុមារ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 ឆ្នាំ 2026 ក្រុងកូាំងម្យ៉ុង

ការសិក្សាថ្នាក់មូលដ្ឋាន



ស្កេន QR កូដដើម្បីចុះឈ្មោះ

*ការគាំទ្រការសិក្សាមូលដ្ឋាន គឺអ្វី?

ជាកម្មវិធីជួយបង្រៀនថ្នាក់មូលដ្ឋាន ភាសាកូរ៉េ និងគណិតវិទ្យា ដល់កុមារ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 ដើម្បីជួយលើកកម្ពស់សមត្ថភាពមូលដ្ឋាន និងជួយឲ្យកុមារមានចំរើនក្នុងការសិក្សា។

កាលបរិច្ឆេទ: ខែ 3~12 ឆ្នាំ 2026
(ខែ 8, 12 មានគម្រោងសម្រាកវិស្សមកាលរដូវក្តៅ)

ម្នុកមានសិទ្ធចូលរួម: កុមារ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ថ្នាក់ទី1~6
*ក្រោយពេលដាក់ពាក្យ ត្រូវផ្ញើឯកសារបញ្ជាក់ថាជា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 ជាការចាំបាច់!

ទីតាំងសិក្សា:

	ខែ 3~6	ខែ7~12
ទីតាំង	បណ្ណល័យយ៉ុនស បន្ទប់វប្បធម៌1 (광명시 연서일로10)	មជ្ឈមណ្ឌលគ្រួសារក្រុងកូាំងម្យ៉ុង (តម្រូវការនៅ철산4동청사)

ខ្លឹមសារ:
-រៀនមូលដ្ឋានភាសាកូរ៉េ, មូលដ្ឋានគណិតវិទ្យា, មុខវិជ្ជាសង្គម រួមទាំងថ្នាក់ភាសាកូរ៉េសម្រាប់កុមារដែលទើបចូលមករស់នៅប្រទេសកូរ៉េ
-រៀនជាក្រុមៗ តាមកំរិតសមត្ថភាព ដោយគ្រូជំនាញផ្នែកមូលដ្ឋាន
-មានរៀបចំសកម្មភាពសិក្សាច្នៃប្រឌិតពិសេស ដោយភ្ជាប់ជាមួយបច្ចេកវិទ្យាAI និងមេរៀនឌីជីថល



☎ ការសាកសួរព័ត៌មានបាក់ហុីសាង / 070-4725-2723

광명시가족센터

성평등가족부

2026 광명시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사업

빛을 품은 광명시

기초학습지원



신청은 QR코드 접속!

기초학습지원?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국어, 수학 기본학습을 지원하여 기초학력 향상과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 2026년 3월~12월 (8월,12월 방학 예정)

모집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초등 1학년 ~ 6학년
※ 추후 다문화 가족 증빙자료 제출 필수!!

교육장소

	3월~6월	7월~12월
교육장소	연서도서관 문화교실1 (광명시 연서일로10)	광명시가족센터 (철산4동청사 예정)

교육내용
- 기초국어, 기초수학, 사회영역, 중도입국 한국어
- 기초학습 전담교사의 수준별 맞춤형 소그룹 수업
- AI 디지털 교과 연계 창의학습과 특별활동 운영



☎ 문 의 : 박희상 담당자 070-4725-2723

광명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위해 광명시와 교원구몬 맞손

광명시, 4~11세 다문화가족 자녀 15명 대상...주 1회, 1대1 맞춤형 방문학습 지원해요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월 27일 ㈜교원구몬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1대1 맞춤형 방문학습 서비스를 제공해 한국어 능력을 높이고 학습 격차를 완화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4세부터 11세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 15명이다. 한글과 국어 등 기초과목을 중심으로 1인 1과목을 지원하며, 방문교사가 주 1회 가정을 찾아 맞춤형 학습지도를 진행한다. 학습비는 ㈜교원구몬 학습지사 8천 원을 후원하고 학습자가 3천 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광명시와 경기도가 지원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방문학습지 지원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력 향상과 자신감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혜정 교원구몬 광명지국장은 "아동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맞춤형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한글과 기초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교육·복지 분야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이에 법무부는 지난 2월 11일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어요.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예요.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9개 기관장에게 특별귀화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고시를 개정했어요.

또한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동포를 우대하고, 우수인재 동포가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특별귀화 요건을 동포에게는 보다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동포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경력 등으로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특별귀화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어요.

이 밖에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자격을 새롭게 갖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도 개정했어요. 다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의 추천자격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동포를 포함한 외국 우수인재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하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연하고 적극적인 이민·국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 〈중국어 11면, 베트남어 7면, 러시아어 9면, 태국어 9면, 영어 22면〉 송하성 기자

The National Council of Multicultural Cities member cities also recommend outstanding talents as special naturalized immigrants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er Jeong Seong-ho) has decided to expand the scope of recommendation for special naturalization for outstanding talent and ease the requirements for special naturalization for Korean nationals.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on February 11th that it had revised and implemented the "Notice on Evaluation Criteria and Recommendation for Special Naturalization for Outstanding Talents."

The "Special Naturalization for Outstanding Talents" system is a system in which foreigners or compatriots who are recognized as possessing exceptional abilities in specific fields such as science, economics, culture, and sports and who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interest can acquire Korean nationality (recognition of dual citizenship) after deliberation by the Nationality Review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pplicants for special naturalization must have received internationally recognized awards or research achievements, or be recommended by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ince 2011, a total of 428 individuals have acquired Korean citizenship through this system.

To actively attract talented individual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Justice revised its public notice to grant the heads of 19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cluding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the authority to recommend special naturalization.

In addition, it was announced that the special naturalization requirements for talented individuals will be applied more relaxedly to compatriots with high historical and cultural homogeneity, so that they can maintain dual citizenship and contribute to the national interest.

According to the revised notice, the system has been improved to allow special naturalization for overseas Koreans who are not currently working in Korea but are recognized as having the potential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interest based on their past experience and other factors.

Furthermore, various provisions related to the special naturalization system for outstanding talent have been revised, including granting recommendation rights to heads of local governments newly qualified as members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lticultural Cities. However, the recommendation qualifications for members of the National Council of Multicultural Cities have not yet been clearly announced. Minister of Justice Jeong Seong-ho said, "I hope that this system improvement will enable talented foreigners, including our compatriots, to be more active members of our societ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continue to pursue flexible and proactiv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policies."

〈한글 기사 상단〉

PapayaStory

지역서점서 책 사면 20% 환급

광명시, 3월부터 '도서구입비 캐시백'



광명시(시장 박승원)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면 최대 20% 혜택을 돌려준다.

광명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관내 지역서점에서 광명사랑화폐로 도서를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도서구입비 10% 캐시백' 사업을 시행한다.

1인당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지역화폐 충전 시 제공되는 10%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최대 20%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시민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지역화폐 가맹 지역서점에서 광명사랑화폐로 도서구입비를 결제하면 캐시백을 즉시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대형 쇼핑몰 입점 서점과 체인 서점을 제외한 지역서점 13곳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온라인 서점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서점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참여 서점은 광명시도서관 누리집(gmlib.gm.go.kr) 또는 홍보 안내문 내 큐알(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독서진흥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지역서점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도시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아이의 첫 독서 '책꾸러미' 응원

광명시, 영유아와 초등 1학년에 도서 제공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아이의 첫 독서를 응원하는 '2026년 북스타트(Bookstart)' 사업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에게 초기 독서 경험을 선사하고,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을 돕는 생애주기별 독서 지원 사업이다.

광명시는 2010년 사업을 도입한 이후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도서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올해는 총 2천688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중 상시 책 꾸러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36개월 이하 영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로, 2025년 말 기준 대상 인구는 7천77명이다. 책 꾸러미는 연령에 따라 3단계로 구성한다. 생후 0~18개월 영아를 위한 1단계 '북스타트', 19~36개월 유아를 위한 2단계 '북스타트 플러스',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초등 북스타트'다. 올해 선정 도서로는 1단계 〈마음이 반짝반짝〉, 〈오르락 내리락〉, 2단계 〈좋아좋아좋아〉, 〈홀짝홀짝 호로록〉, 초등 단계 〈빨간점〉, 〈훔치다〉가 포함된다. 책 꾸러미에는 그림책 2권과 북스타트 가방, 가이드북을 담았다.

광명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상별 신청·배부 방식을 다각화했다. 1단계 영아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택으로 택배 발송한다.

직접 수령을 원하는 1단계 영아 보호자와 2단계 유아 보호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지참해 관내 6개 도서관(하안·광명·철산·소하·연서·충현)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학교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해 배부한다. 02-2680-0908 이지은 기자





학습자 동기 높이고 안정적인 참여 유도

김포시가족센터, 2026년 한국어교육 오리엔테이션 실시



김포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본격적인 수업 운영에 앞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맞춤형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국어 레벨테스트 ▲수준별 반 편성 안내 ▲교육 운영 방식 및 연간 일정 공유 ▲출결 관리 기준 안내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전교육 영상 시청 등이 진행됐다. 특히 레벨테스트를 통해 학습자 개별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반에 배정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업 참여 방법, 출결 기준, 수료 요건 등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안내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참여를 독려했다. 출석률 관리 기준과 지각·결석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사전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센터 관계자는 "오리엔테이션은 단순한 안내 절차를 넘어 학습자의 동기를 높이고 안정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맞춤형 수업으로 본격 운영되며, 참여자들이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활동에서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김포시가족센터, 정리수납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모집

김포시가족센터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센터는 지난해 개인상담, 집단상담, 교환일기 프로그램, 주거생활 지원, 디지털·스마트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1인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다. 이에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생활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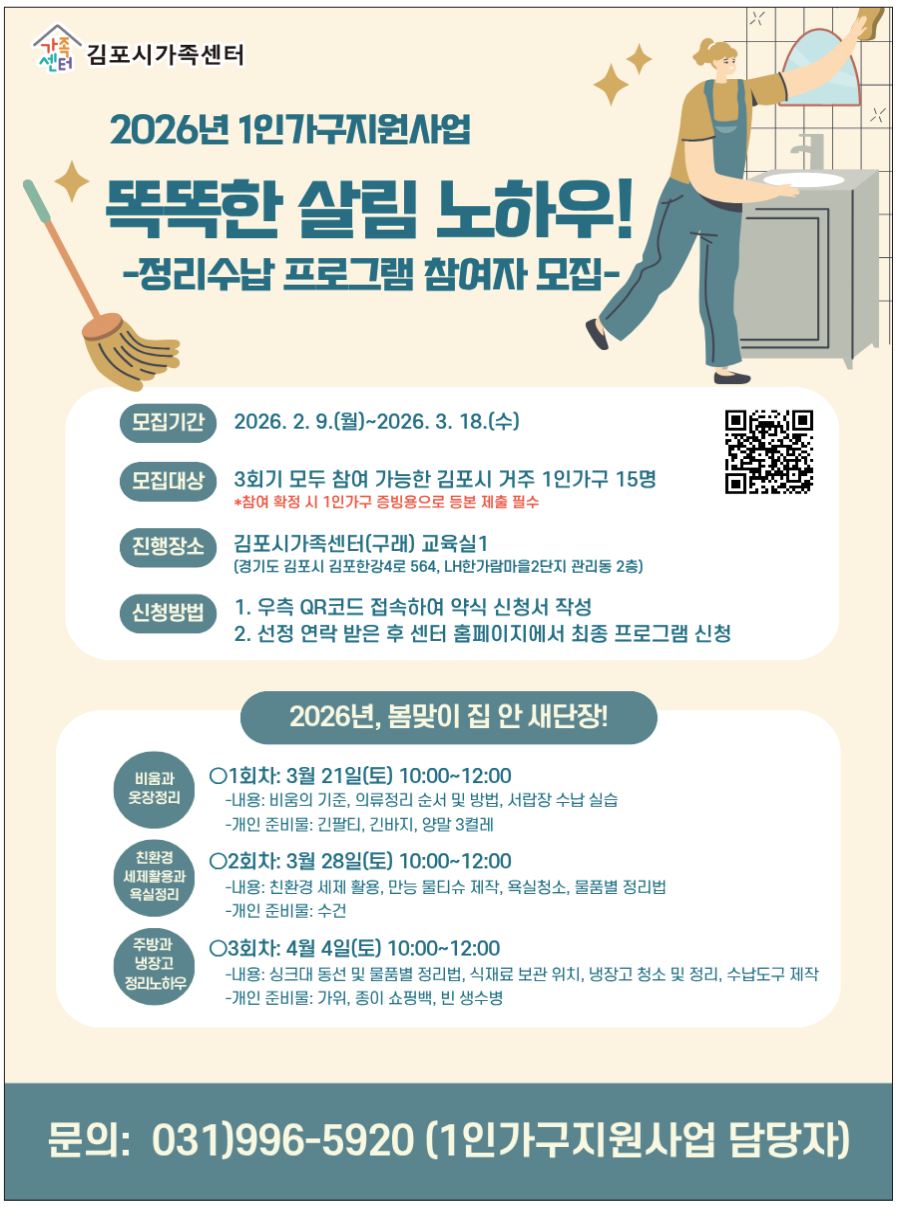
2026년 사업은 전년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과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동네 탐방 ▲취미 공작소 ▲추석 행사 ▲정리수납 교육 ▲집수리 교육 ▲호신술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고, 자립적인 생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3월에는 정리수납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문의 031-996-5920

이지은 기자





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운영...취약계층 이주민 권익 보호

공공 법률지원 위한 변호사 모집...소송 시에는 무료 아닌 수임료 지불해야

경기도는 3월 13일까지 '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변호사를 모집해요.

이주민 법률지원단은 언어·문화적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이주민에게 전문적인 소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경기도는 ▲민사(노동 포함) ▲가사 ▲행정(출입국 포함) 분야를 중심으로 20명 내외의 변호사 인력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에요. 모집 대상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주민·외국인 관련 사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이 부여돼요. 선정된 변호사는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4월 초부터 사건 지원을 시작해요.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경기도는 과도한 수임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유형별 권고 수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에요. 실제 수임료는 이주민과 변호사 간 계약에 따라 결정돼요. 경기도가 법률 지원의 전 과정을 지원하므로 실제 소송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변호사 보다 믿을 수 있어요.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로 상담을 문의하면 센터가 1차 상담과 사례 검토를 거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고, 통역과 소송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에요.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gmis.or.kr)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3월 1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돼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031-853-9347)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법적 분쟁 상황에서도 이주민이 제도권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중국어 하단, 영어 1면〉

파파야스토리

京畿道运营移民法律支援团...保护弱势群体移民权益...为公共法律援助招募律师

京畿道将于3月13日前招募参与"京畿道移民法律支援团支援项目"的律师。

移民法律支援团是为了向因语言、文化障碍和信息不足而难以使用法律服务的道内弱势群体移民提供专业的诉讼支援而准备的。

京畿道计划以▲民事(包括劳动)▲家事▲行政(包括出入境)领域为中心，组成20名左右的律师人力，构建系统、可信赖的法律支援体系。

招募对象为具有律师资格并具有2年以上工作经验的人。

有移民、外国人相关案件经验或接受相关教育时给予加分。 被选定的律师接受义务教育后，从4月初开始承办案件。委任期限为自委任之日起至2026年12月31日。

为防止收取过高律师费，京畿道将根据案件类型提供建议收费标准指南，并通过使用标准合同提高合同透明度。

实际受理费是根据移民和律师之间的合同决定的。京畿道将对法律支援全过程提供支持，因此在确有诉讼需要时，相较于其他律师更具可信度。

对于需要法律援助的移民可向京畿道移民社会综合支援中心咨询，中心将通过第一次商谈和案例讨论，筛选出需要律师协助的案件，并提供口译及诉讼对接支援。

有意参与的律师可在京畿道移民社会统合支援中心网站(gmis.or.kr)下载提交材料，并于3月13日前通过电子邮件提交。详情可咨询京畿道移民社会统合支援中心(031-853-9347)。

京畿道移民社会政策科长尹贤玉(音)表示:"即便在法律纠纷情况下，也将支持移民在制度框架内依法维护正当权益。期待具备专业性与公共责任感的律师积极参与。"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김포시, 3월 3일부터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분기별 25만원 지원



김포시는 지역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통합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월 20일 김포페이(분기별 25만원)가 지급된다. 김포페이 가맹점 및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학원비와 각종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사회 진입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980-58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김포시청 031-980-2114 김포시가족센터 031-996-5923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031-986-7660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031-987-6241 김포이주민센터 031-982-7661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99-09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FULL LIFE GMPO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2026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



김포시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김포시에 거주하는 90일 이상 경과한 등록 체류 외국인
- 2026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이외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지원기간
- 2026년 3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절차
1. 신청 — 신청서 제출
2. 접수 및 현장조사 — 1. 신청서 접수 2. 현장확인 및 사실조사
3. 지원검토 — 1.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2. 지원여부 결정
4. 지원 및 통보 — 병원 또는 개인 계좌로 지원비 입금

지원내용
- 생계비 :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긴급 생계 어려움이 있을 시 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83,000	4인	1,994,600
2인	1,286,600	5인	2,324,400
3인	1,644,000	6인	2,580,700

- 의 료 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긴급한 지원 필요시(의사 소견서 필수)
  의료실비 : 최대 100만원 출산비 : 최대 70만원
- 장 제 비 :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시 지원 (최대 80만원)

신청방법
- 신청 :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 031-986-7668
- 서류 : 공통서류 및 지원에 따른 필요 서류 (www.gimpofc.kr 공지사항)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FULL LIFE GMPO

2026년 관내 거주 내·외국인 대상

동아리 활동 참여자 모집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에서
관내 거주 내·외국인 대상 동아리 활동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생활 베트남어 | 여행 일본어 | 손뜨개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김포시 거주 외국인 또는 내국인

모집기간
2026년 2월 1일~마감 시까지(선착순 마감)
(수강 확정된 분들에 한해 개별 문자 연락)

모집과정

동아리	개강일	교육시간	모집인원
생활 베트남어	3/7	토) 10:00 ~ 12:00	15명
여행 일본어	3/7	토) 14:00 ~ 16:00	15명
손뜨개	3/5	목) 13:00 ~ 15:00	15명

※ 센터 상황에 따라 전체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강기간
2026년 3월 초~ 6월 말 (총 16회)

수 업 료
무료 (※외국어 동아리의 경우 교재비 본인 부담)

활동장소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주소 :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

신청방법 및 문의
구글폼 온라인 신청
☎ 031-986-7668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GMPO 2026년 교육발전특구 이주배경청소년교육지원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과목, 이중언어, 맞춤형 활동 교육 신청 안내문

※ 교과목 - 수학, 영어 / 맞춤형 활동 - 미술, 축구, 댄스, 상담심리
이중언어(모국어) - 방글라데시 차크마어, 러시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대상자	김포 관내 학교 재학 및 입학 예정 이주배경청소년
교육기간	2026년 2월 ~ 12월
수강료	무료
접수방법	한국어 / 교과목 / 이중언어 / 맞춤형활동
문의	이주배경청소년교육지원팀 070-4113-4608/4610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경기도
FULL LIFE GMPO

2026년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디딤돌 교실' 수강생 모집



중도입국자녀의 한국 사회 및 학교 적응을 위한 **디딤돌 교실**에서
'한국어, 체험프로그램' 교육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김포시 거주 중도입국자녀 (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신청기간 | **2026년 2월12일부터 마감시까지 (선착순 10명)**

수 강 료 | 무료

신청방법 | QR코드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교육문의 | 070-4113-4610 (이주배경청소년팀)

교육기간 | 2026년 3월~11월

교육일시 | 주중(월,목) 주2회 예정 (자세한 일정은 모집후 개별안내)

교육과목 | 한국어 (초등, 중등) 체험프로그램(연 4회)

교육장소 |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방문지도사 현장 전문성 강화해요~

김포시가족센터, 방문지도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는 지난 2월 3일 2026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문지도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사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방문지도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미정 센터장은 "방문지도사는 가정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각 가정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세심한 교육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사업은 센터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 방문지도사가 가정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어교육을 비롯해 부모교육과 자녀교육을 함께 운영하며,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녀의 학습 및 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센터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6년 방문교육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해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031-996-5920 송하성 기자

기초학습 지원해 학력 격차 해소!

김포시가족센터,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김포시가족센터가 2026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학습 공백을 메우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2026년 기초학습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언어 환경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또래 아이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 회복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2026년도 기초학습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교과 과정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국어(문해력)와 수학(기초연산)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초 국어 교육은 알림장 받아쓰기부터 교과서 읽기, 어휘력 향상 활동을 통해 수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 기초 수학 교육은 숫자의 개념 정립부터 덧셈, 뺄셈 등 기초 연산 능력을 강화하여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또한 김포시가족센터는 아이들의 수준별 맞춤 학습을 위해 소그룹 또는 개별 지도 방식을 도입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습 속도가 느린 아동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다.

김포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된 학습 습관과 기초 학력은 이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다문화 아동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초학습 지원사업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교재비 별도)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홍보지 내 구글폼으로 접수하거나 센터 방문 또는 전화 접수하면 된다.

김포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070-4919-5670 이지은 기자

김포시가족센터, 언어발달 지원사업 외부기관 간담회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는 지난 1월 22일, 다문화가족 자녀의 체계적인 언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연계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언어발달지원사업 운영 방향성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포 지역 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언어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언어 치료 및 교육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포시가족센터 사업 담당자와 협약 체결 중인 외부 연계 언어발달 서비스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2026년에는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언어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기관별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현황 공유 ▲대상 아동별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고도화 ▲연계 기관간 원활한 소통 및 사례 관리 네트워크 구축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협력 등이 다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계 기관 관계자는 "다문화 아동의 언어 발달은 아이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김포시가족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아이가 적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포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외부 전문 기관과의 파트너십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고 깊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26년 한 해 동안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언어 장벽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포시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언어 평가, 언어 교육, 부모 상담 등으로 구성되며,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은 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는 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가족센터 가족 2팀 언어발달지원 담당자(☎031-996-5920)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소통

김포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위촉식 및 OT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는 지난 2월 5일 오전, 센터 교육실에서 '2026년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태국,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멘토 5명이 참석해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규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국 3년 이상이면서 한국어 중급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추고, 지역사회 활동 경험이 풍부한 결혼이민자를 멘토로 위촉해 운영된다. 위촉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김포시에서는 총 10명의 멘토가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센터장이 멘토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조미정 센터장은 "결혼이민자 멘토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를 넘어, 김포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든든한 연결고리"라며 "센터 홍보와 통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멘토 활동 지침과 활동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이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결혼이민자 발굴 및 센터 등록 연계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 안내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 제공 △SNS를 활용한 비대면 멘토 활동 기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멘토 활동이 행사 동원이나 형식적 참여로 흐르지 않도록 지침을 명확히 안내하고, 실질적인 정착 지원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멘토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며 "이제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멘토들의 경험과 언어, 문화적 이해가 더해질 때 지역사회 통합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멘토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현장에서 신규 결혼이민자의 지역 적응을 지원하고, 다문화 정책과 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족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김포 온가족보듬사업 보듬매니저오리엔테이션 실시해



김포시가족센터는 2026년 온가족보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듬매니저 오리엔테이션(OT)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총 8명의 보듬매니저가 참여했으며, 사업 운영 방향과 활동 역할,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활동일지 작성 방법 등 현장 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본 교육이 진행됐다.

보듬매니저는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긴급위기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 담당자는 "보듬매니저는 위기가족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재 보듬매니저를 상시 모집 중인 만큼 지역사회 돌봄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취약·위기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 및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취약·위기가족 발굴, 긴급지원 상담, 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가족3팀(☎ 031-996-5920)으로 하면 된다. 가족복지 전문기관인 김포시가족센터는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김포시가족센터, 지역주민 인식개선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서로 다른 문화 존중

김포시가족센터는 2026년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산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김포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2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각 기관과 일정을 조율해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에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출신의 다문화 강사들이 직접 파견된다. 강사들은 자국의 문화, 전통 놀이 및 음식, 인사말 등을 소개하며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과 체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으로 구성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 문화 이해 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교육 지원을 요청했고, 또 한 유치원에서는 "반 전체 유아가 외국 국적 아동으로 구성돼 있어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포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 및 아동·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031-996-5920

송하성 기자